

세미나 자료집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

일 시 : 2011년 9월 9일(금) 오후 4시 ~ 8시

장 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층 회의실

주 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 차

1. 미국의 도덕성 교육 및 프로그램 현황과 우수사례 1
조아미 교수(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2. 일본의 청소년 도덕교육현황 29
강영배 교수(대구한의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3. 독일의 도덕성 교육 및 프로그램 현황과 우수사례 57
김영래 교수(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4. 싱가포르 '공민과 도덕교육' (Civics and Moral Education) · 89
김항인 교수(경인교육대 윤리교육과)
5. 국내 도덕성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113
이채식 교수(대구한의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발표 1

미국의 도덕성 교육 및 프로그램 현황과 우수사례

조아미 교수(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1. 전반적인 도덕성 교육 현황

미국의 교육은 NCLB법(No Child Left Behind)을 근거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법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서명했는데, 이것으로 미국의 교육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새로운 교육정책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미 교육부에서는 2010년 974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았다(<http://www.ed.gov/recovery>).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서는 미국 국민에게 4가지 약속을 하는데, 그것은 주로 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것이다(<http://www2.ed.gov/about/overview/budget/budget10/summary/edlite-section2.html>). 얼핏 이것만을 보면, 미국의 교육은 국어나 수학 등과 같은 아카데미한 과목의 성취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덕성 교육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도덕성 교육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정부와 경제(government and economy)라는 사회과 과목에서 도덕성 교육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학교 전체 차원에서 도덕성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학교생활 전반이나 다른 교과목에서 도덕성 교육이 오히려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도덕성 프로그램을 통해 도덕성 교육이 실시된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도덕성 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도덕성 교육은 미국에서는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재정 등과 같은 지

원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지원하는 부처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의 Office of Safe and Drug-Free Schools(OSDFS)이다. OSDFS는 교육부 장관과 차관에게 정책과 프로그램 실시에 관해 보고하는 교육부 차관보의 지휘 아래 있으며, 인성과 시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약물과 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다른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sdfs/index.html?src=oc>). OSDFS에서는 학교나 비영리단체에서 인성과 시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Partnerships in Character Education Program, We The People, Cooperative Civic Education and Economic Education Exchange Program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과 시민 교육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캘리포니아를 예로 들면, 캘리포니아 교육부에서는 Coordinated School Health & Safety Office에서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2010년 9월 30일 캘리포니아 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Code Section 233.5(a))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내용을 정한 바 있다(<http://www.cde.ca.gov/ls/ys/ce/charactercode.asp>). 이를 근거로 캘리포니아 교육감인 O'Connell은 효과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핵심 교육과정과 학교문화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www.cde.ca.gov/eg/in/se/charactered.asp?print=yes). 즉, 인성의 요소들은 모든 캘리포니아의 교육과정에 융합되어야 하는데 특히 역사-사회과학 과목과 언어과목의 틀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인성교육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될 수도 있고 기존의 프로그램이 교과과정에 포함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교육과정의 교과목 뿐만 아니라 실시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도덕교육의 경우,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도덕성 검사를 하지는 않는다. 반면 실시된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에서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끝나면 학생들은 문제 설명하기, 대안

검토하기, 공공정책 개발하기, 액션플랜 만들기과 시행하기의 주제와 관련된 4개의 패널을 만든다. 이 네 개의 패널로 만든 포트폴리오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결국 미국의 도덕성 교육은 가치와 덕목을 가르치는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의미하고 있고, 이것은 학교에서 하나의 독립된 교과목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주제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특징은 교육과정과 연계를 가지면서 실시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와는 독립적으로 비영리단체 등에서 독자적인 인성교육이나 시민교육을 시행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2. 도덕관련 교과목 현황

미국은 국가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도덕교과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미국의 도덕교육은 특정 교과를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학교교육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덕교육과 가장 관련있는 교과목을 들자면, 사회과 교육 중, 정부와 경제(government and economy)라고 할 수 있다. 도덕교육의 기준과 내용은 미국사회과교육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NCSS)와 시민교육센터(시민교육센터, CCE)에서 제시한 것을 따른다(조난심·윤현진·이명준·차우규·전현선, 2005). 미국사회과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다음의 <표 1>과 같은 가치영역과 하위 덕목을 도덕교육의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 1〉 미국사회과교육협의회에서 제시하는 도덕교육의 내용

영역	하위영역
개인의 권리	생존, 자유, 존엄, 안전, 기회 균등, 정의, 사생활 보호, 사유재산
개인의 자유	정치 참여, 믿음(worship), 사상(thought), 양심, 집회, 탐구, 표현
개인의 의무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관용, 정직, 연민(compassion), 자기 통제, 민주적 과정에의 참여, 공공선을 위한 일, 타인의 재산 존중
사회의 조건과 국가의 책임에 관련된 믿음들	사회는 다수가 받아들이는 규칙이 필요하다.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는 보호되어야 한다.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출처. 조난심 외(2005).

한편, 시민교육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11개의 가치와 덕목을 도덕교육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조난심 외, 2005).

- 예의(civility)
- 개인적 책임
- 자기 규제
- 시민 의식
- 열린 마음
- 해결을 위한 절충
- 다양성에 대한 관용
- 인내와 지속성
- 연민
- 관대함
- 국가와 국가를 이루는 기본 원칙에 대한 충성

미국에서 도덕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올바른 기능에 기여하는 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차우규·윤현진·이명준·정세구, 2004). 즉, 공공의 선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가치 혹은 덕목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가치와 덕목은 미국의 헌법에 기초한 가치와 덕목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주나 교육청에 따

라 도덕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덕목이 다를 수 있다. 다음의 <표 2>에서는 일부 주정부와 교육청의 도덕교육에서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표 2> 미국의 주정부와 교육청의 인성교육이 지정하고 있는 핵심가치

분류	대표적 예	핵심가치 목록
주정부의 교육표준	캘리포니아	개인의 존엄성, 공정성, 정직, 용기, 자유와 자율성, 개인의 사회적 책임, 공동체와 공동선, 정의, 기회의 균등
	뉴저지	동정심, 용기, 정직, 성실, 책임, 자기규율, 자기존중, 관용
	워싱턴	정직, 신뢰, 성실, 자신과 타인존중, 약속에 대한 책임, 자기규제와 중용, 근면, 준법, 적극적 행동, 가족애
교육구의 교육표준	볼티모어 카운티 교육청	동정심, 예의, 비판적 탐구자세, 정당한 절차, 기회균등, 사고와 행동의 자유, 정직, 인간의 가치와 존엄, 성실, 정의, 충성심, 질서, 애국심, 합리적 합의, 책임, 관용

차우규 외(2004).

미국의 주정부와 교육청의 인성교육이 지정하고 있는 핵심가치 중, 일부에 대해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핵심가치 교육에 대한 상세 내용의 예

가치	내 용
신뢰	신뢰란 무엇인가, 거짓말은 무엇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시험중 부정행위, 약속을 지켜야 할 때, 진실을 이야기한 후의 느낌, 타인이 나를 신뢰할 때의 느낌, 내가 믿는 것을 지키는 것과 신뢰, 진실을 말하는 용기와 신뢰, 나 자신에 대한 평가
존중	존중이란 무엇인가, 존중하는 행위의 예, 존중을 통한 우정, 존중을 표시하는 방법, 존중받을 권리, 존중에 대해 알아야 할 위인, 내가 존중하는 친구, 나 스스로 나에 대한 존중, 내가 어떻게 할 때 타인이 나를 존중할 것인가
책임	책임이란 무엇인가, 책임져야 할 상황, 누가 무엇에 책임이 있는가, 나의 문제와 책임, 위인들, 책임은 권리를 정당화 한다, 책임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나의 습관과 책임, 나의 실수와 책임의 문제

출처. 차우규 외(2004).

3. 도덕성 향상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현황*

미국의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경우, 학교나 비영리단체 혹은 주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주관하고 각각의 주정부의 관리하에 학교나 비영리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이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연방정부의 부처는 교육부다. 교육부의 OSDFS에서 주관하는 도덕교육 프로그램으로는 Partnerships in Character Education Program, We The People, Cooperative Civic Education and Economic Education Exchange Program이 있다. 이들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Partnerships in Character Education Program

이 프로그램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통합할 수 있고, 각 주의 학업성취 기준과 일치하고, 다른 교육개혁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근거는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 as amended, Title V, Part D, Subpart 3, Sec 5431 — Partnerships in Character Education; 20 U.S.C. 7247이다. 2004-2009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받은 주는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롬비아 특별구,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사스, 매사추세츠, 미시건, 노스 캐롤라이나, 뉴욕, 오키오, 몬태나, 펜실베이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테네시, 사우스 다코다, 뉴멕시코, 괌이다.

2) We The People

이 프로그램은 시민권과 헌법을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권리장전의 원칙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미국 정치제도의 근거가

* 이 부분의 내용은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sdfs/programs.html#cce>에서 발췌해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School Violence Prevention Demonstration Project는 <http://new.civiced.org/programs/svpdp>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되는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코디네이터들이 직접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하원의원 선거구(각 주에 있음),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사모아, 괌,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국·공립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에서는 시민권 교육의 촉진과 시민권에 대한 권리와 책임감을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활동으로는 심사원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과 하원 청문회 시뮬레이션이나 하원 청문회 시뮬레이션에서 중등학생 팀의 경쟁 대회와 같은 것이 있다. We the People에는 Project Citizen과 The Citizen and the Constitution, 그리고 School Violence Prevention Demonstration Project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는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 as amended,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Title II, Part C, Subpart 3, Secs. 2341-2346; 20 U.S.C. 6711-6716이다.

(1) Project Citizen과 The Citizen and the Constitution

We the People: The Citizen and the Constitution은 현재 진행중인 국가차원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코디네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민교육센터에서는 다시 각 주에 코디네이터를 지정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 주의 코디네이터는 교과서를 배포하고, 훈련을 코디네이트하고, 매년 5월에 있는 대회를 주관하고, 그 주에 있는 각각의 하원의원 선거구의 코디네이터들이 협력하도록 조정한다.

We the People: Project Citizen은 현재 진행중인 중학생용 시민교육 교육과정으로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공공정책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시민교육센터와 the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공공정책을 어떻게 모니터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지 배우는 것을 돕는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 관용, 정치효능감을 발달시킨다. 학생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찾아낸다. 그들은 그 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공공정책의 형태로 그들 자신의 해결책을 발전시키고, 그들이 제안한 정책이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지역행정가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정치적 행동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참여자들은 지역사회구성원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공청회에서 그들의 프로젝트를 보여준다.

이 교육과정은 1995-96학년도에 12개 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이후 이 국내용 프로그램은 미국령 사모아, 컬럼비아 특별구, 괌, 푸에르토리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주의 학교로 확장되었다. 2008년 9월 29일, 약 32,200명의 교사가 1,955,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Project Citizen 프로젝트를 가르쳤다.

Project Citizen은 전세계의 교실에서도 사용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나라에는 Albania, Argentina, Azerbaijan, Bangladesh, Bosnia and Herzegovina, Brazil, Bulgaria, Canada, Chile, China, Colombia, Croatia, Czech Republic,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Germany, Ghana, Honduras, Hungary, Indonesia, Israel, Japan, Jordan, Kazakhstan, Korea (south), Kosova, Kyrgyzstan, Latvia, Lebanon, Lithuania, Macedonia,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i, Mexico, Mongolia, Morocco, Nigeria, Pakistan, Panama, Paraguay, Poland, Puerto Rico, Romania, Russia, Senegal, Serbia and Montenegro, Slovak Republic, Slovakia, South Africa, Taiwan, Thailand, Ukraine, West Bank and Gaza가 포함된다.

(2) School Violence Prevention Demonstration Project

The 시민교육센터의 School Violence Prevention Demonstration Program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시민교육과 집단참여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 훈련, 연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시민 지식, 기술,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것은 비판적 사고, 협동학습, 집단 문제해결, 수행평가를 강조하고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교사들에게는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또한 학생들이 다른 사람

의 생각에 관용을 가지는 것처럼 그들의 시민 지식과 태도에 있어서 변화를 평가하도록 해준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11개 도시(10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교육센터가 교육부로부터 청소년들 사이에서 시민 가치와 원칙이 폭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프로젝트를 받으면서 1999년 5월 시작되었다. 연구결과는 We the People 프로그램과 같이 우수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했다. 1999-2000학년도에 7개 학군에서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http://new.civiced.org/programs/svpdp>). 이 프로그램은 시민교육이 폭력예방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시범실시 후 프로그램이 확대되었고, 지금은 공립과 사립, 도시, 시골, 미국 인디언 학교에서도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4-12학년에게 실시되고 있다.

(3) Cooperative Civic Education and Economic Education Exchange Program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윤리, 정부, 경제교육에 관한 교육과정과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미국 등 국가에서 교육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적용, 시행, 제도화가 가능한 국가들을 돕는 것, 각 국의 학생들을 위한 윤리, 정부,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 각 국의 정치적, 민간, 교육 지도자들 사이에 윤리, 정부, 경제교육에 대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류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관한 세미나를 지원하고, 윤리와 정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나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정부와 경제 교육을 현재의 교육과정으로 변환하거나 각색한다.

이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는 ESEA Title II, Part C, Subpart 3, Sec. 2345 ; 20 U.S.C. 6715이다. Cooperative Civic Education and Economic Education Exchange Program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관은 Constitutional Rights Foundation Chicago, Sage Colleges Council on Citizenship Education, 시민교육센터(Civic Education), 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Economic Education)이다.

4. 우수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 사례*

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CEP)는 워싱턴 디시에 본사를 둔 비영리단체로 미국내 학교의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CEP에서는 미국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발하여 알림으로써 효과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에서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state schools of character(SSOC)와 national schools of character(NSOC)로 나눈다. SSOC는 주정부가 인성발달 부분이 우수한 학교를 선정한 것으로 3년간 이 타이틀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주정부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사스, 매사추세츠, 미시건, 노스 캐롤라이나, 뉴욕, 오크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오크라호마, 아이오와, 위스콘신,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루이지애나, 뉴햄프셔, 미조리, 미네소타, 텍사스, 유타, 미시시피, 메릴랜드이다. NSOC는 SSOC 중에서 선발하며 이 타이틀을 5년간 보유할 수 있다. NSOC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주정부에서 인정하고 그 중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을 다시 선정한 것임으로 매우 우수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NSOC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 이 부분은 <http://www.character.org/lessonplan-newportmillmiddleschool>,
<http://www.character.org/winnerssignaturesearchdetails?wsid=81>,
<http://www.character.org/lessonplan2-waterloomiddleschool>,
<http://www.character.org/winnerssignaturesearchdetails?wsid=76>,
<http://www.character.org/lessonplan-francishowellmiddleschool>의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표 4〉 2011년 national schools of character(NSOC) 목록

Alan B. Shepard Jr. Elementary School Old Bridge, New Jersey	Babler Elementary School Wildwood, Missouri
Bayless Elementary School St. Louis, Missouri	Beauvoir the National Cathedral Elementary School Washington, DC
Bell's Crossing Elementary School Simpsonville, South Carolina	Benjamin Franklin Classical Charter Public School Franklin, Massachusetts
Bingham Farms Elementary School Bingham Farms, Michigan	Bowles Elementary School Fenton, Missouri
Branson Elementary West Branson, Missouri	Brentwood School Los Angeles, California
Brigantine Elementary School Brigantine, New Jersey	Chatham Middle School Chatham, New York
Cotswold Elementary School Charlotte, North Carolina	Crestwood Elementary School Crestwood, Missouri
Duffy Elementary School West Hartford, Connecticut	Duncan Elementary School Fort Hood, Texas
Eldridge Park School Lawrenceville, New Jersey	Fort Bend Independent School District Sugar Land, Texas
Fox Middle School Arnold, Missouri	Fuguitt Elementary School Largo, Florida
Geggie Elementary School Eureka, Missouri	George Guffey Elementary School Fenton, Missouri
Imagine South Lake Clermont, Florida	John A. Carusi Middle School Cherry Hill, New Jersey
Joseph J. Catena School Freehold, New Jersey	Kellison Elementary School Fenton, Missouri
Lake Riviera Middle School Brick, New Jersey	Lincoln Elementary School Troy, Missouri
Lindbergh High School St. Louis, Missouri	Mark Twain Elementary School Brentwood, Missouri
Muskogee High School Muskogee, Oklahoma	Oakhurst Elementary School Largo, Florida
Oakwood Elementary School Glen Burnie, Maryland	Pembroke Elementary School Troy, Michigan
Pierce Elementary School Birmingham, Michigan	Renfro Elementary School Collinsville, Illinois
Roosevelt Primary School Ferndale, Michigan	Salt Brook Elementary School New Providence, New Jersey
South Brunswick High School Monmouth Junction, New Jersey	St. Louis Charter School St. Louis, Missouri
Union Elementary School Buckhannon, West Virginia	Uthoff Valley Elementary School Fenton, Missouri
Walnut Street School Uniondale, New York	Woerther Elementary School Ballwin, Missouri

NSOC 프로그램은 미국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우수한 것이므로 이들 중, 일부를 자세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Newport Mill Middle School(2007 National School of Character)

- 제목: 배려(Owen과 Mzee)
- CEP의 11개 원칙*과 연계: 배려하는 학교 공동체 구성 돕기(원칙 4)
- 핵심가치와의 연계: 배려, 친절
- 예상시간: 30 - 40분
- 교급 수준: 초등학교와 중학교

① 수업목표(Lesson Objectives)

- 학생들은 친절함과 배려심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생들은 세상에서 배려의 중요성을 이해할 것이다.
- 학생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개관(Overview)

학생들은 130년된 거북이 Mzee가 2004년 쓰나미로 인해 가족과 해

* CEP(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의 11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http://www.character.org/11principles?s=cep%2011>).

- ① 학교 공동체는 바람직한 인성의 기초로서 핵심적인 윤리적 및 행동적 가치를 촉진한다.
- ② 학교는 인성을 사고, 정서, 행동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것으로 정의한다.
- ③ 학교는 인성발달에 대한 종합적, 의도적, 적극적 접근을 한다.
- ④ 학교는 배려하는 공동체를 조성한다.
- ⑤ 학교는 도덕적 행동을 할 기회를 학생에게 제공한다.
- ⑥ 학교는 모든 학습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인성을 개발하고 그들이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의미있고 도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⑦ 학교는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시킨다.
- ⑧ 교직원은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학생에게 제시된 같은 핵심 가치를 지키는 윤리적 학습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 ⑨ 학교는 인성교육 발의안을 지지하고 리더십을 공유한다.
- ⑩ 학교는 가정과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인성 함양에 힘쓴다.
- ⑪ 학교는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성을 나타내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어진 후 아기 하마 Owen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준 Owen과 Mzee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친절과 배려심을 탐색한다. 이 이야기는 Owen과

Mzee가 살고 있는 케냐의 동물 보호구역의 책임자인 Paula Kahumbu 박사, 부녀지간인 Isabella Hatkoff와 Craig Hatkoff가 들려준 것이다.

③ 준비 자료

- Owen & Mzee: Isabella Hatkoff, Craig Hatkoff, and Paula Kahumbu(2006)가 쓴 놀라운 우정에 관한 실제 이야기.
- 논의용 슬라이드
- 학생용 워크시트

④ 절차

- 교사는 배려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람에 대한 배려없는 삶은 유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 여러분이 전학을 가서 학교에 간 첫날이라고 가정하자.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매번 한두명의 학생이 여러분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이름을 묻고, 자신의 이름도 말한다.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인가?
 - 만일 그 반대라면? 아무도 여러분한테 다가오지 않고, 아무도 인사하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을 그냥 무시한다면, 그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까?
- 교사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금 우리는 거북이가 어떻게 인간이 가진 친절함을 아기 하마에게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친절함이 아기 하마가 생존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에 관한 실제 이야기를 읽을 것이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교사는 Owen과 Mzee의 이야기를 읽을 수도 있다.
- 논의: 이야기를 읽은 후, 교사는 읽은 이야기에 관해 인간의 친절이라는 특성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가지는 질문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 유인물: 교사는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학생들과 질문들을 검토한다. 교사는 그 때 학생들에게 학생용 워크시트를 나누어 준다. 학생들은 학교급과 시간이 허락하는 것에 따라 하나 혹은 두 개의 질문을 선택한다.

⑤ 평가(Assessment)

수업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의 워크시트를 걷는다.

⑥ 확장과 적응(Extensions and Adaptations)

외국어 교사는 단지 하나의 질문에 학생들이 답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 때 다른 활동으로서 배울 언어로 “배려란?” 이라고 라벨을 붙인 포스터를 사용한다. 학생들은 포스터로 가서 특정 언어로 배려가 의미하는 것을 단어나 구로 쓰도록 한다. 혹은 “새 학생에게 인사하는 것” 과 같이 배려를 보여주는 행동을 적을 수도 있다.

교사들은 2004년s 일어났던 쓰나미의 결과로 인한 손실을 알아보기 위해 Owen과 Mzee에 대한 공감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수업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

(2) Sentinel Career Center(2010 National School of Character)

- 제목: 친구에게 손을 내밀기
- CEP의 11개 원칙과 연계
 - 원칙 2: “인성” 이 사고, 감정, 행동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도록 정의
 - 원칙 4: 배려하는 학교 공동체 만들기
- 핵심가치와의 연계: 존중, 책임감, 시민성, 배려
- 연결 주제: 다양성, 관용
- 예상 시간: 15-20분
- 학년 수준: 이 수업은 중학교나 고등학교(7-12)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유치원-6학년 학생을 위해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① 수업목표(Lesson Objectives)

-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마칠 때 팀워크 기술을 발달시킬 것이다.
- 학생들은 장애를 가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것이다.
- 학생들은 자신의 퍼포먼스와 팀의 퍼포먼스를 꼼꼼히 생각할 것이다.

② 개관(Overview)

이 수업은 학생들이 장애인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공감하는 것을 돕도록 구성되었다. 이 수업은 개인적으로 일할 때 어떻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팀으로 여러분이 함께 일할 때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 활동은 쉽게 공감, 존중, 신뢰, 배려에 관해 논의하도록 이끌 것이다.

③ 준비 자료

- 메모지 (팀별)
- 스테이플러 (팀당 한 개)
- 가위 (팀당 한 개)

④ 절차

- 무작위로 학생들을 3-4개 집단으로 나눈다.
- 각 집단에 메모지, 스테이플러, 가위를 준다.
- 말을 하지 않고, 잘 쓰는 손을 등 뒤에 대고, 각 집단은 주어진 시간(5-7분)에 가장 긴 종이 체인을 만든다.
- 이와 같은 활동을 한번 한 후, 다음에는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논의하는데 2분이 주어진다.
- 논의 후, 처음 했던 활동을 반복한다. 팀에게는 5-7분이 주어진다.

⑤ 평가

마무리를 할 때, 학생들은 의자에 되돌아와서, 존중, 배려, 신뢰, 시민성의 인성 특성을 생각해 보고 논의한다.

⑥ 확장과 적응

학생들은 장애인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이 매일 당면하는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목발 등을 주고 이것을 사용한 채 점심을 먹으러 가고, 사무실에 가거나 장애인과 교실로 이동하는 연습을 한다.

(3) Waterloo Middle School(A 2008 National School of Character)

① 수업목표(Lesson Objectives)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운 인성의 특성을 포함한 사이트를 개설한다.
- 다양한 이유로 돈이 필요한 경우(예, 암 발생), 돈을 모으고, 지역 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시각적 표현을 한다.

② 개관(Overview)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작품을 만듦으로써 설치미술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나타낼 것이다. 설치미술을 위한 준비로 학생들은 설치미술가인 Jeanne Claude와 Christo, 그리고 Pepon Osorio의 작품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읽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그들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운 특정 인성의 특성을 활용할 것이다. 그들은 암 생존자, 암 희생자, 암 투병자의 상징으로 하트 모양을 사용한 펠트 배너를 디자인할 것이다. 학생들은 배너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동적으로 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배너 안에서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예술의 원칙(움직임)을 이해하게 된다. 학생들은 설치미술과 회화나 조각 등과 같은 보다 전통적인 형태의 미술을 비교하는 에세이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을 지나감으로써 그들이 설치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

③ 준비 자료

- 학생들에게 대중미술을 가르칠 재료: Scholastic Magazine on Jean Claude와 Christo, DVD on The Gates by JC and C in NYC, 설치미술 포스터
- 펠트 현수막, 작은 조각의 펠트
- 하트 견본
- 가위
- 핫 글루 & 총
- 까만색 마커
- 플라이어, 주문서

④ 과정

촉진활동(Kindling Activity)

수업목표에 기초해서 매 수업시간에 제시할 핵심적인 질문을 적는다.

첫째 날:

설치미술의 개념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공책에 적도록 한다.

Pepon Osorio를 소개한다. 가능하면 그가 설치하는 비디오를 보여준다.

그들이 본 것에 관해 간단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Jeanne Claude와 Christo의 “The Gates” 라는 작품을 사진으로 보여준다.

Jeanne Claude와 Christo에 관한 기사가 난 Scholastic Art magazine을 나누어준다. 교실에서 첫 번째 기사의 2-3페이지를 읽기 시작한다.

둘째 날:

간단한 복습을 한다.

Jeanne Claude와 Christo에 관한 기사가 난 Scholastic Art magazine을 나누어준다. 첫째 날 읽기 시작했던 기사를 끝까지 읽는다.

학생들은 소집단으로 4-5, 6-7페이지의 기사와 사진을 검토한다.

클래스에 암 배너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허락을 받기 위해 행정가를 교실에 초대한다.

학생들을 소협동집단으로 나눈다. 집단에게 플라이어를 달고, 성명서를 쓰고, 작은 조각의 펠트로 된 하트를 만들고, 하트를 자르는 역할을 하게 한다.

셋째 날과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까지:

학생들은 협동집단으로 나뉘어서 하트를 만들고 자르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지워지지 않는 마커로 하트에 이름을 쓰기 시작한다.

설치미술에서 사용된 특정 어휘에 대한 퀴즈를 본다.

하트가 팔릴 때마다(하나에 \$1), 학생들은 지워지지 않는 마커로 하트가 대변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하나의 하트에 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학생들은 각각 현수막의 앞뒤에 형형색색의 하트를 붙인다.

끝날 때까지 학생들은 설치를 한다. 학생들은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수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모든 현수막이 완성되면 각 현수막의 두 끝에 끈을 단다.

학생들은 거리의 나뭇가지에 도움을 받아 현수막을 단다.

학생들은 야외에서 프로젝트에 관한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동안 설치물을 통과할 것이다.

⑤ 평가(Assessment)

비공식적 평가: 수업참여와 토론, 특별히 또래와의 협력, 수업

공식적 평가: 주요 질문, 비교 에세이, 퀴즈, 설치

(4) Mill Pond School(2010 National School of Character)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목: Touchstone Soup• 예상시간: 60분• 대상: 4-8학년 |
|---|

① 수업목표

- 학생들은 최소한 학교에서 긍정적인 인성에 필수적인 4개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이 가치들을 매일 학생들이 보여줄 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생들은 학교전체의 시금석 개발에 기초가 되는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② 개관

학생과 교직원의 협동에 의해 만들어진 학교의 시금석은 긍정적이고 배려하고 배우는 시민이 되려는 우리의 바램과 연결된 소속감과 공유의 가치가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강력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수업은 우리가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말과 행동의 기준이 높은 학교의 시금석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③ 준비 자료

- Marcia Brown이 쓴 돌 수프(Stone soup) 이야기
- 매끄러운 돌
- 학생들에게 익숙한 정의로 된 가치 목록
- 다른 학교시금석의 예
- 준비된 “시금석 스프(Touchstone Soup)” 워크시트
- 연필

④ 절차

소개

시민권의 가치를 소개한다. 학생들은 간단하게 미국, 주, 마을, 학교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논의한다.

돌 수프(Stone soup) 읽기. 학생들에게 그들이 읽은대로 이 이야기와 시민권 사이의 관계에 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 연관성에 대해 논의해라.

시금석의 개념을 설명한다:

“학교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시금석(Touchstone)이라고 부르는 매우 중요한 것을 만들 것이다. 원래, 시금석은 바위 안에 다른 금속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어둡고 딱딱한 돌이다.”

“때때로 시금석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느끼는 근거로 삼는데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잠을 수 있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다.” 매끄러운 돌의 예를 보여준다.

“시금석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의 시금석은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금석이라는 말의 의미일 뿐이다. 그것은 우리가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준을 묘사하는 맹세나 약속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시금석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학교 공동체에 우리가 속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안전하고 가치있다고 믿게 할 것이다!”

다른 학교의 시금석 예를 읽는다.

활동

“돌 스프에서처럼, 우리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줄 것이고, 작은 조각들이 보다 큰 것으로 발전해가는데 공헌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시금석 스프를 만들 것이다. 성인들이 만든 우리 학교의 모토와 미션과 달리 여러분이 시금석의 작가가 될 것이다.”

학생들을 3-4명씩의 집단으로 나눈다. “시금석 스프” 워크시트와 핵심가치의 목록을 나눠준다.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4개의 핵심 가치를 선택해서 각각의 집단에게 가르쳐준다. 각 집단에게 그 가치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묘사하는 4개의 문장을 만들도록 한다. 정의보다는 단어, 행동, 믿음을 강조한다.

논의

집단이 만든 문장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⑤ 평가

학생들은 전체집단과 소집단 논의를 통해서 평가된다. 학생들의 문장은 질과 이해부분에 대해서 평가된다.

⑥ 확대와 적용

4학년 학생이 만든 문장은 그것을 6개의 간결한 문장으로 만들 5학년 학생들과 그들과 같이 활동할 성인 인성교육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전해질 것이다.

5학년 학생이 만든 문장은 시금석을 만들 문장의 구조와 단어선택을 함께 할 6학년 학생과 교사에게 넘길 것이다.

학생들은 매주 아침 조회시간에 시금석을 암송할 것이다.

학생들은 매달 시금석의 원리들을 묘사하는 비디오를 만들 것이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행동이 “Touchstone Touchdowns” 이나 “Touchstone Triumphs” 처럼 시금석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인정해준다.

시금석은 시, 저널, 아트, 공유, 조회를 통해 학급의 교육과정에 통합될 것이다.

(5) Francis Howell Middle School(2008 National School of Character)

- 제목: 콜롬버스: 영웅인가 악당인가?
- 11개 원리와의 연계:
인성발달에 대해 종합적이고 의도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을 사용하라(원리 3)
- 핵심가치와의 연계: 존중, 동정심
- 예상시간: 55분 수업 2회
- 대상: 이 수업은 8학년을 위한 것이지만 6-12학년 학생들을 위해 수정될 수 있다.

① 수업목표

학생들은

-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만난 원주민들에 관한 그의 의견과 관찰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사실을 확인한다.
-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영웅인지 악당인지를 결정하는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정보를 분석한다.

② 개관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콜럼버스가 영웅 혹은 악당으로 인식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다.

③ 준비 자료

- James W. Loewen이 쓴 Lies My Teacher Told Me: Everything Your American History Textbook Got Wrong(Chapter 2, “1493: The True Importance of Christopher Columbus”)
- 프린트물: 콜럼버스 저널
- 프린트물: 콜럼버스 에세이 가이드

④ 절차

학생들이 “콜럼버스: 영웅인가 악당인가?” 라는 제목으로 T-차트를 만들도록 한다. 학생들은 차트에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선행지식과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들은 콜럼버스와의 교환이 장애라기 보다 가교의 역할을 했다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학생들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읽는다. 학생

들에게 프린트물에서 발췌한 내용을 읽게 하고 질문에 대답하게 한다. 콜럼버스가 그들이 만난 원주민을 대하는 태도와 원주민이 콜럼버스를 대했던 태도를 학생들과 논의한다.

2장의 Lies My Teacher Told Me에 있는 내용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논의한다.

인간 그래프 게임을 한다. 교실의 네 구석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약간 동의하지 않음이라는 사인을 붙여놓는다. 다음의 문장을 읽고 학생들은 그들의 생각에 따라 교실의 어느 한 구석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 유럽인은 원주민에 비해 앞선 테크놀로지를 가졌다.
- 전반적으로 세계는 콜럼버스의 탐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 콜럼버스는 좋은 행동보다 나쁜 행동을 더 많이 했다.
- 콜럼버스가 아니라 시대가 변화를 가져왔다(즉, 콜럼버스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는 아메리카를 발견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콜럼버스 에세이 지침을 나눠준다.

“콜럼버스는 영웅인가 악당인가?”에 관한 에세이를 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생들은 프린트물에 있는 지시사항을 따른다.

⑤ 평가

학생들의 인쇄물과 에세이를 걷어서 평가한다.

5. 우리나라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시사점

미국과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다른 점이 많다. 전세계의 국가에서는 각자 그들의 역사, 문화, 경제, 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도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도덕교육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도덕성 향상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도덕성 향상을 측정하는데 다양한 평가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덕성은 도덕교과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도덕성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덕교과를 통해 도덕성 교육을 하게 되면 평가방식은 시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수행평가가 도입되어 시험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에는 도덕성 평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 중 하나를 예로 들면 포트폴리오 작성이다. 뿐만 아니라 Lickona는 포트폴리오를 포함한 서술형, 발표, 자기보고, 찬반토론, 연구보고서, 프로젝트를 수행평가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박장호·추병완, 1998).

2) 도덕성은 단일교과가 아니라 학교전체에서 교육해야 한다.

도덕성을 단일교과로 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일교과로 다룰 경우 자칫하면 도덕성을 단지 인지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청소년들은 도덕을 그저 하나의 공부하는 교과목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의 도덕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 보다는 여러 교과에서 도덕성을 연계하여 가르치고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도덕적인 행동을 습관화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3) 공공선의 추구를 통해 글로벌 가치와 덕목을 전세계 사람들과 공유한다.

도덕성은 문화와 사회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도덕성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공공선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와 덕목을 전세계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노력을 한다. 이를 통하여 세계평화와 인류애에 기여하게 한다. 미국의 인성 및 시민 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CIVITAS는 Project Citizen에 근거한 전세계 80여개국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 4) 우수 프로그램의 공유를 통해 도덕성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널리 알린다.

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CEP)에서는 SSOC와 NSOC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선발된 프로그램의 수업계획서를 공개함으로써 도덕성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SSOC와 NSOC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학교관계자나 부모 등에게 도덕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한다.

- 5) 덕목과 가치교육을 통해 폭력예방 등과 같은 다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미국 교육부 내에서 인성과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인성과 시민교육 뿐만 아니라 약물예방이나 폭력예방 등도 함께 다루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We the People에서는 시민성이나 미국의 정부, 헌법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력예방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 사이의 폭력을 예방하는데 폭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민주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와 덕목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6) 정부, 학교, 지역사회와의 효율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도덕성 교육에서 정부의 역할은 프로그램이나 재정에 대한 지원이다. 실제로 도덕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학교나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들이다. 이에 따라 정부, 학교,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는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 이것은 이들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7) 사고, 행동, 정서가 연계된 도덕성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덕성 교육은 주로 사고와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이 연관되어 제시되기보다는 이를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러나 도덕성이라는 것이 사고적 측면이나 행동적 측면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더욱이 각각 분리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각 측면을 포괄하여 연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참여가 적극적으로 장려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박장호·추병완 공역(1998). 인격교육론, 서울: 백의.
- 조난심·윤현진·이명준·차우규·전현선(2005). 도덕과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차우규·윤현진·이명준·정세구(2004). 도덕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추병완(1999). 외국에서의 도덕과 수행평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http://www.cde.ca.gov/ls/yd/ce/characteredcode.asp>
- <http://www.character.org/lessonplan-newportmillmiddleschool>
- <http://www.character.org/winnerssignaturesearchdetails?wsid=81>
- <http://www.ed.gov/recovery>
-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sdfs/index.html?src=oc>
-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sdfs/programs.html#cce>
- <http://www2.ed.gov/about/overview/budget/budget10/summary/edlite-section2.html>
- <http://www.cde.ca.gov/eg/in/se/charactered.asp?print=yes>
- <http://new.civiced.org/programs/svpdp>
- <http://www.character.org/11principles?s=cep%2011>
- <http://www.character.org/lessonplan2-waterloomiddleschool>
- <http://www.character.org/lessonplan-francishowellmiddleschool>
- <http://www.character.org/winnerssignaturesearchdetails?wsid=76>
- Morris, P. & Cogan, J.(2001). A comparative overview: Civic education across six socie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5, 109-123.



발표 2

일본의 청소년 도덕교육현황

강영배 교수(대구한의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1. 도덕성 교육 실태(국가차원의 강조점, 국가적 종합계획, 내용)

1) 도덕교육의 역사적 변천과정

馬와西村(2008)는 일본의 도덕교육을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라 크게 4 단계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메이지(明治)시대(1868-1912)로, 이 시대는 메이지천황(明治天皇)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체제를 구축해나가는 시기이며, 존황(尊皇)사상에 입각하여 국가를 통치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법제도적으로는 일본제국헌법(明治憲法)을 제정하였으며, 1872에는 일본 근대 교육제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학제(學制)」가 발표되었다. 이 학제에서 명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교과목에는 철자(綴字), 습자(習字), 단어(單語), 회화(會話), 독본(讀本), 수신구수(修身口授), 서독(書牘), 문법(文法), 산술(算術), 양성법(養成法), 지학대의(地學大義), 본술(本術), 창가(唱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도덕에 해당하는 과목이 수신구수(修身口授)였으며, 수업은 주로 교사가 서양에서 출판된 번역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의 내용으로는 근로, 검약, 관용, 인내, 성실 등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도덕에 관한 내용과 박애, 노소(老小) 등과 같은 인간관계상의 도덕 그리고 권리, 의무 등 사회인으로서의 도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879년 소학교교칙강령(小學校校則綱領)에서 수신구수(修身口授) 과목은 수신과(修身科)로 개명되었다.

1890년에는 교육칙어(教育勅語)가 발표되었으며, 이 교육칙어는 유교적 윤리관과 입헌주의적 공덕(公德)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교육칙어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천황중심의 신민교육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1945년 세계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 교육의 근본원리로 작용하였다.

둘째, 다이쇼(大正)시대(1912-1926년)로, 이 시기에 메이지시대의 교사중심, 교과서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아동중심, 아동의 자유와 자발성 그리고 개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사립소학교(小學校)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데, 그 가운데 세이쵸(成城)소학교에서는 개성존중의 교육, 자연과 친숙해지는 교육, 심성 교육 그리고 과학적 연구에 기초한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도덕과목에 해당하는 수신과(修身科)를 4학년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한편, 공립 소학교에서는 군대식 체력단련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의 단련뿐만 아니라 규율과 복종 등과 같은 군국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하였다.

셋째, 쇼와(昭和)시대(1926-1989년)로, 이 시기는 1945년을 기준으로 전전(戰前)과 전후(戰後)시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1945년 이전의 교육은 천황을 현존하는 신(神)으로 신격화하여 국민의식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1941년에는 초등학교령(國民學校令)이 발표되었으며, 이 가운데 수신(修身), 국어, 국사, 지리 등과 같은 과목을 통하여 「신국일본(神國日本)」의 관념과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맹주」로서의 의식을 주입시켜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희생정신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1945년 패전이후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변혁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교육에 있어서도 종래의 천황중심적 교육이념에서 탈피하여 인간, 인격,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그 이념이 전환되었다. 도덕교육에 있어서는 1945년의 공민교육혁신위원회의 답신에서 수신과를 폐지하고 공민(公民)과 수신(修身)의 이념을 통합한 공민과(公民科)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도덕교육이 특정 교과에 한정되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1958년에는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었는데, 이 때 공립 소학교와 중학교에 「도덕의 시간(道德の時間)」이 새롭게 개설하였으며, 주 1시간 「도덕의 시간」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교육과정을 통하여 도덕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008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교육과정을 각교과, 도덕, 외국어활동, 종합적 학습시간, 특별활동의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도덕교육을 교과목(教科目)에서 교과(教科)로 승격시켰다.

표1. 각 시대별 도덕교육의 내용 및 특징

시대	도덕교육의 내용 및 특징
메이지(明治)시대 (1868-1912)	• 도덕교육은 수신구수(修身口授)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 실시. 이후 수신과(修身科)로 개명 • 수신구수의 내용은 근로, 검약, 관용, 인내, 성실 등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도덕에 관한 내용과 박애, 노소(老小) 등과 같은 인간관계상의 도덕 그리고 권리, 의무 등 사회인으로서의 도덕에 관한 내용 • 교육칙어(教育勅語)(1890년)에서 국민도덕의 기본적 방침이 제시됨 • 교육칙어는 천황중심의 절대주의적 신민 교육이 교육의 기본 방침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다이쇼(大正)시대 (1912-1926)	• 다시오(大正)신교육운동: 아동중심, 아동의 자유, 자발성, 개성을 중시 • 다양한 사립 소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수신과(修身科)를 통해 도덕교육 실시 • 공립 소학교에서는 군대식 훈련을 통한 규율과 복종을 강조
쇼와(昭和)시대 (1926-1989)	• 천황을 신격화하여 천황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강조 • 국민학교령(1941년)에서는 의식, 행사, 단체훈련을 중시 • 1945년 교육내용의 개편과정에서, 수신과목이 폐지되었으며, 공민과(公民科)가 신설 • 1945년이후, 도덕교육은 특정 교과를 통해서라 아니라, 전체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

2) 법, 제도적 체계를 통해 본 도덕교육의 강조점 및 내용

일본의 도덕교육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이념은 「학교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학교기본법 제1장 「교육의 목적 및 이념」 제2조(교육의 목표)에서는 도덕성의 함양과 애국심의 고취를 강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교육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며, 다음에 열거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一 폭넓은 지식과 교육을 몸에 익히며,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를 배양하며, 풍요로운 정서(情操)와 **도덕성**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갖추는 것

二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그 능력을 신장하여 창조성의 배양, 자주 및 자율의 정신을 기함과 동시에 직업 및 생활과의 관련의 중시하며, 근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양할 것

三 **정의와 책임, 남녀의 평등**, 자타(自他)의 경애(敬愛)와 협력(協力)을 중시함과 동시에 **공공(公共)의 정신**에 기초하여 주체적으로 사회의 형성에 참여하며 그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배양할 것

四 생명을 존중하며,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를 것

五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며 이러한 전통과 문화를 계승해 온 **국가와 향토를 사랑**하며, 타국(他國)을 존중하며, 국제사회의 평화(平和)와 발전(發展)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를 것

또한,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學習指導要領) 제1장 「총칙」 제1 「교육과정편성의 일반방침」의 2에서는 도덕교육의 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도덕교육은 도덕의 시간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서 실시하며, 도덕의 시간을 비롯하여 각교과, 외국어활동, 종합적 학습시간 및 특별활동의 특성에 맞게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덕교육은 교육기본법 및 학교교육법에서 정해진 교육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인간존중의 정신과 생명에 대한 경외(畏敬)의 마음을 가정, 학교 기타 사회에서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살리며,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며,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여 발전시킨다. 그리고 개성과 풍요로운 문화의 창조를 도모함과 동시에 공공의 정신을 존중하며, 민주적인 사회 및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자발적으로 평화적인 국제사회에 공헌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성을 갖춘 일본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기반으로서의 도덕성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도덕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교사와 아동 및 아동상호간의 인간관계를 돈

독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이 자기의 인생에 관한 생각을 심화하며,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집단숙박활동, 자원봉사활동, 자연체험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아동의 내면에 뿌리 내리고 있는 도덕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때 특히, 아동이 가본적인 생활 습관, 사회생활의 규범을 몸에 익히며, 선악을 판단하여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것들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중학교 학습지도요령(學習指導要領)도 초등학교 학습지도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덕교육의 기본방침과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學習指導要領) 제1장 「총칙」 제1 「교육과정편성의 일반방침」의 2에서는 도덕교육의 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은 학생들이 자아탐구와 자아실현에 힘쓰며,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에 기초하여 행동할 수 있는 발달단계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간으로서의 삶의 방식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전체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를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 교과에 속한 과목, 종합적 학습시간 및 특별활동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덕교육은 학교기본법 및 학교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근본정신에 기초하여 인간존중의 정신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정, 학교, 기타 사회의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 살려나가며, 풍요로운 심성을 가지고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며, 이를 계승해 온 국가와 향토를 사랑하며, 다양한 개성을 지닌 문화의 창조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공공의 정신을 존중하며, 민주적인 사회 및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쓰며, 타국(他國)을 존중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 환경의 보전에 공헌하며,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주체성 있는 일본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기반으로서의 도덕성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도덕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도덕적 실천력을 고양(高揚)함과 동시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 자율의 정신사회연대의 정신 및 의무를 다하며,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및 인권을 존중하며 차별없는

보다 좋은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지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008년 3월 28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었는데*, 이 때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도덕의 시간(道徳の時間)」을 새롭게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이 시간을 중심으로 관련 교과목과의 보충, 심화, 통합을 강조하는 등 도덕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었다. 새롭게 개정된 초등학교,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강조하고 있는 도덕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단계에 따른 지도내용의 중점화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인사 등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 집단과 사회의 규칙 준수하기 등을 강조하며, 중학교에서는 주체적으로 사회의 형성에 참여하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아동, 청소년이 감동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교재의 개발과 활용을 들 수 있겠다. 이를 위하여 마음의 노트(心のノート)를 부교재로 적극 활용하며, 다양한 도덕교육 실천사례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해당 학교가 독자적으로 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셋째, 「도덕교육추진교사」를 중심으로 한 지도체제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종래에는 도덕교육을 담임교사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개정 학습지도요령에서는 도덕교육을 전담할 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시간의 공개수업,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공통이해 및 상호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즉, 도덕교육의 주체를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한 다자간 체계로 접근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달리, 별도로 도덕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민과(科)의 현대사회 과목에서 도덕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도덕교육의 중심내용으로는 청소년들의 인생관, 삶의 가치관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12년 3월부터 적용되며, 중학교의 경우에는 2013년 4월부터 적용된다.

2. 도덕관련 교과목 현황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덕교육은 기본적으로 「도덕의 시간(道徳の時間)」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35시간(주 1시간)의 수업시수가 배정되어 있다. 도덕교육의 특징으로는 발달단계에 따른 지도내용의 중점화, 아동, 청소년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매력적인 교재의 개발과 활용, 도덕교육추진교사(도덕교육의 추진을 주로 담당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한 지도체제의 충실, 도덕시간의 공개,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공통이해, 상호연계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이 도덕의 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공민(公民)* 교과내에서 주로 「현대사회」 과목에서 도덕성 함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달리 도덕적 실천력의 함양,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 자율의 정신, 사회연대의 정신 및 의무를 다하는 책임의식, 인권존중의 정신, 차별없는 사회의 구현을 위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각 학교단계별 도덕교육의 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 공민과(科)에는 「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 과목이 포함된다.

1) 초등학교 도덕교육 현황

표2. 초등학교 각 교과별 수업시수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각교과별 수업시수	국어	306	315	245	245	175	175
	사회			70	90	100	105
	산수	136	175	175	175	175	175
	이과			90	105	105	105
	생활	102	105				
	음악	68	70	60	60	50	50
	도회공작	68	70	60	60	50	50
	가정					60	55
	체육	102	105	105	105	9	90
도덕의 시간		34	35	35	35	35	35
외국어활동						35	35
종합적 학습시간				70	70	70	70
특별활동		34	35	35	35	35	35
총수업시수		850	910	945	980	980	980

각 학년별 도덕교육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저학년인 1,2학년의 경우에는 크게 자기자신에 관한 내용,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 자연과 숭고함에 관한 내용 그리고 집단 및 사회의 관계에 관한 내용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 내용은 <표 3>, <표 4>, <표 5>를 참조해 주길 바란다.

표3. 1, 2학년의 도덕교육의 내용

항목	세 부 내 용
자기자신에 관한 내용	• 건강, 안전에 주의하며, 물건, 금전을 소중히 하며, 주변을 정리정돈하며, 제 멋대로 굴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하기
	• 자신이 해야 할 공부, 일은 확실하게 처리하기
	•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며,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기
	•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구김 없이 생활하기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	• 기분 좋게 인사하기, 말과 행동에 주의하며 밝게 생활하기
	• 유아, 노인 등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기
	•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 돕기
	• 평소 도움을 받고 지내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 가지기
자연과 송고함에 관한 내용	• 살아있음을 즐겁게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기
	• 자연에 친숙함을 느끼며, 동식물을 다정한 마음으로 대하기
	• 아름다운 것들을 접하며, 상쾌한 마음 가지기
집단·사 회의 관계에 관한 내용	• 약속과 규칙을 지키며,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기
	• 행동하는 것의 장점을 느끼며, 모두를 위해 행동하기
	• 부모, 조부모를 경애하며,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돕는 등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의 즐거움을 알기
	• 선생님을 경애하며, 학급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기
	• 향토의 문화, 생활에 친숙함을 느끼며, 애착 갖기

표4. 3, 4학년 도덕교육의 내용

항목	세 부 내 용
자기자신에 관한 내용	•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하며, 잘 생각해서 행동하고, 절도 있는 생활하기
	• 마음먹은 일은 끈기 있게 마지막까지 달성하기
	• 올바르다고 판단되는 일은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기
	• 잘못된 순순히 수정하며, 정직하고 밝은 마음으로 활기차게 생활하기
	• 자신의 특징을 깨닫고 장점은 살리기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	• 예의의 소중함을 알며,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기
	• 상대방을 배려하며 자발적으로 친절하게 대하기
	• 친구와 서로 이해하며, 신뢰하며, 서로 돕기

	•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 노인 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
자연과 숭고함에 관한 내용	• 생명의 존엄함을 느끼며 생명을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기 • 자연의 대단함과 불가사의함에 감동하며, 자연가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기 • 아름다움과 고상함에 감동하는 마음 가지기
집단 · 사회의 관계에 관한 내용	• 약속과 사회의 규칙을 지키며,公德심을 가지기 • 행동하는 것의 장점을 느끼며, 모두를 위해 행동하기 • 부모, 조부모를 경애하며,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돕는 등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의 즐거움을 알기 • 선생님을 경애하며, 학급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기 • 향토의 문화, 생활에 친숙함을 느끼며, 애착 갖기 • 일본의 전통과 문화에 친근감을 가지며, 애국하는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외국사람과 그들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표5. 5, 6학년 도덕교육의 내용

항목	세 부 내 용
자기자신에 관한 내용	• 생활습관의 중요함을 알며,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보며, 절도를 지키며 절제에 유의하기 • 보다 높은 목표를 세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기 •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자율적으로 책임있는 행동하기 • 성실하게 밝은 마음으로 즐겁게 생활하기 •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궁리하여 생활을 보다 좋게 만들기 • 자신의 특징을 랑아 단점은 고치며 장점은 적극적으로 살리기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	• 때와 장소를 구별할 줄 알며, 예의 바르게 진심으로 대하기 • 모든 이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상대방을 입장에 서서 친절하게 대하기 • 서로 신뢰하며, 배우며 우정을 돈독하게 하며, 남녀 사이좋게 서로 협력하며 돕기 • 겸허한 마음을 가지며 넓은 마음으로 자신과 다른 의견과 입장을 소중하게 여기기 • 하루하루의 생활이 서로 돕고 지탱함으로 인해 성립된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에 부응하기
자연과	• 생명의 소중함을 알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기

승고함에 관한 내용	• 자연의 위대함을 알며,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기기 •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마음과 인간의 힘을 초월한 것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기
집단·사 회의 관계에 관한 내용	• 공덕심을 가지고 법과 규칙을 준수하며,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며,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 누구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으며, 편견을 가지지 않고 공정, 공평하게 정의의 실현에 힘쓰기 • 주변의 조직(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여 협력하여 주체적으로 책임을 수행하기 • 일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즐거움을 알고 공공을 위해 도움이 되는 역할 수행하기 • 부모, 조부모를 경애하며, 가족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하기 • 선생님과 교직원에게 대해 경애하는 마음을 가지며, 모두가 협력하여 보다 좋은 교풍을 만들기 • 향토와 국가의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선인들의 노력을 알며 향토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기 • 외국인과 그들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며,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세계인들과의 친선(親善)에 힘쓰기

2) 중학교 도덕교육 현황

표6. 중학교 각 교과별 수업시수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각교과별 수업시수	국어	140	140	105
	사회	105	105	140
	수학	140	105	140
	이과	105	140	140
	음악	45	35	35
	미술	45	35	35
	보건체육	105	105	105
	기술·가정	70	70	35
	외국어	140	140	140
도덕의 시간		35	35	35
종합적 학습시간		50	70	70
특별활동		35	35	35
총수업시수		1015	1015	1015

「학습지도요령 도덕편」에 따르면, 중학교 도덕교육의 목표는 도덕 시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전체를 통하여 도덕적인 심정, 판단력, 실천의욕과 태도 등 도덕성을 배양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은 해당 교과뿐만 아니라 종합적 학습시간 및 특별활동과 도덕교육을 연계하여 실시하며, 이 때 교육은 계획적이며, 발전적인 차원에서 보충, 심화, 통합을 통하여 도덕적 가치 및 이에 기초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방식에 대한 자각과 도덕적 실천력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표7. 중학교 도덕교육내용

항목	세 부 내 용
자기자신에 관한 내용	•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몸에 익히며,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절도를 지키며, 절제에 유의하여 조화로운 생활하기
	• 보다 높은 목표를 세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착실하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기
	• 자율의 정신을 소중히 하며, 자주적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실행하여 그 결과에 책임지기
	•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개성을 살려 충실한 인생관을 추구하기
	•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이상의 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	• 예의의 의의를 이해하며, 때와 장소에 적합한 적절한 언동을 취하기
	• 따뜻한 인간애의 정신을 심화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 가지기
	• 우정의 소중함을 이해하여 마음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며, 서로 격려하기
	• 남녀는 서로 이성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심화하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기
	• 상대방의 개성과 입장을 존중하며, 다양한 견해와 생각에 존재함을 이해하여 관용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겸허한 자세로 배우기
	• 많은 사람들의 선의(善意)와 지원을 통해 일상의 생활과 현재의 자신이 존재함에 감사하며, 이에 부응하기
자연과 숭고함에	• 생명의 존엄함을 이해하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기
	• 자연을 애호(愛護)하며,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며,

관한 내용	인간의 힘을 초월한 것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기
	인간에게는 약함과 추함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함과 고상함이 있다는 점을 믿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기
집단·사회의 관계에 관한 내용	법과 규칙의 의의를 이해하여 준수함과 동시에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 사회의 질서와 규율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기
	공덕심 및 사회연대에 대한 자각심을 높이며, 보다 좋은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
	정의를 소중히 여기며, 모든 이에 대하여 공정, 공평하게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
	자기가 속한 다양한 집단의 의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여 집단생활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근로의 존엄함과 의의를 이해하여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공공의 복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부모, 조부모에 대한 경애심을 가지며,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충실한 가정생활을 만들어가기
	학급, 학교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가지며, 교사와 교직원에게 대한 경애심을 가지며, 협력하여 보다 좋은 교풍 수립하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향토를 사랑하며, 사회를 위해 헌신한 선인들과 노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향토의 노력을 위해 노력하기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국가를 사랑하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훌륭한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공헌하기
	세계속에서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며, 국제적인 시야에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기

4) 마음의 노트(心のノート)

「마음의 노트」는 문부과학성이 2002년 4월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무상으로 배포한 도덕시간에 사용하는 부교재이다. 초등학교용으로는 1·2년용, 3·4년용, 5·6년용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중학교용으로는 한 가지 종류가 있다. 내용의 구성은 기본적으로는 학습지도요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덕교육의 내용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중학교용의 경우에는 남녀간의 관계와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부과학성이 각 급 학교에 대하여 「마음의 노트」를 작성, 배포하게 된 배경에는 1997년 고베(神戸)에서 발생한 연쇄아동살인사건, 1999년에 토찌기(栃木)에서 발생한 여성교사살해사건, 히카리시(光市)모자살해사건 등 아동범죄가 연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심성교육, 도덕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되었으며, 이후 국회의 논의를 거쳐 문부과학성이 押谷由夫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교재개발연구팀을 구성하여 「마음의 노트」를 작성, 배포하게 된 것이다. 「마음의 노트」의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 8>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표8. 초등학교 1,2학년 「마음의 노트」 주요 내용

항목	제목 및 주요내용	
자기자신에 관한 내용	• 기분 좋은 하루	• 가슴을 펴고 걸어가자
	• 거짓말은 해선 안되요.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어요.	• 도움이 될까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	• 마음과 마음을 잇자?	• 인사는 마음의 리본
	• 따뜻한 마음을 전하자	• 친구들과 함께
	• 고마워! 를 찾아보자	• 어떤 사람들과 만나게 될까.
자연과 숭고함에 관한 내용	• 생명을 접해보자	• 모두 모두 살아 있어요.
	• 생명을 기르자	• 살아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빛나고 있어요.
	• 우리 모두 줄넘기	• 가슴 가득 느껴보자.
집단·사회의 관계에 관한 내용	• 모두 기분 좋게 걸어가자.	• 모두 즐겁게 기분 좋게
	• 소중한 각자의 일들	• 가족이 너무 좋아요.
	• 신세지고 있어요.	• 당신이 키우는 마을

표9. 초등학교 3,4학년용 「마음의 노트」 주요내용

항목	제목 및 주요내용	
자기자신에 관한 내용	• 빛나는 내가 되자!	• 내딛자! 독립을 향한 힘찬 발걸음
	• 용기를 낼 줄 아는 내가 되자	•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다' 는 마음을 가지자

	•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마음이 정말 가벼워져요.	• 자신의 장점은 뭘까요?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	•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자	• 혼자가 아니라서 힘낼 수 있어요.
	• 서로 배우며, 의지하며 돕기	• 모두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나
자연과 숭고함에 관한 내용	• 살아있다는 것은.	• 식물과 동물도 모두 살아 있어요.
	• 자연의 아름다움을 접하고	• 오직 하나뿐인 나의 생명
집단·사회의 관계에 관한 내용	• 약속, 규칙을 지키기 때문에 사이 좋게 생활할 수 있어요	• 모두를 위해 흘리는 땀은 정말 아름다워
	• 나의 성장을 따뜻하게 지켜봐 주는 사람들 - 가족	• 우리들의 마음을 길러주는 고향

표10. 초등학교 5,6학년용 「마음의 노트」 주요내용

항목	제목 및 주요내용	
나를 키우기	• 나의 하루는 내가 만든다	• 꿈에 도달하기까지 단계가 있어요
	• 자유란 뭘까요?	• 호기심이 출발점
더불어 살아가기	• 마음과 마음을 잇는 네트워크	• 친구란 건 좋은 거네요.
	•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부터	• ‘고마워요’ 라고 말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기	• 지금 살아있는 나를 느끼자	• 살아있어요. 자연과 함께.
	• 커다란 생명의 숨소리를 들어 보자	• 너무나 소중한 생명
사회를 만들기	• 활기찬 자신! 빛나고 있는 친구!	• 일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 서로 배우는 가운데	• 마음이 세계를 연결해요

표11. 중학생용 「마음의 노트」 주요내용

항목	제목 및 주요내용	
자기자신 관한 내용	• 인생의 주인공	• 건강해요? 당신의 몸과 마음은
	• 자기 일은 혼자 힘으로 결정하기	•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자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	• 배려하는 마음을	• 네가 있기 때문에
	• 예의를 모른다는 건 부끄러운 일	• 은 인간의 한 사람으로

자연과 숭고함 에 관한 내용	• 지구에 태어나	• 너무나 소중한 생명
	• 유구한 시간의 흐름 이 대자연	• 곱씹어 보자 인간으로 산다는 것의 위대함
집단 · 사회의 관계에 관한 내용	•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써	• 당신은 언제나 혼자가 아니기에
	• 집단, 그리고 한 사람 한사람이 빛나기 위해	•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 발전을 기원하기
	• 가족이기 때문에	•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생각하기

3. 도덕성 검사

현재 일본 정부는 아동, 청소년들의 도덕성의 실태에 관한 조사는 하고 있으나, 그들의 도덕성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작업은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부 민간 연구소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덕성검사척도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척도로는 신판도덕성검사(HUMAN)와 도덕성진단검사(HEART)가 있는데, 이들 두 척도는 모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신판(新版)도덕성검사(HUMAN)(이하, 휴먼)*

휴먼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대상으로 그들의 도덕성, 특히 도덕적 심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진단하여, 도덕교육의 지도와 평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1991년에 개발된 검사지이다. 이 검사지는 도덕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도덕적 심성(도덕성의 정서적 측면)과 도덕적 판단력(도덕성의 인지적 측면)에서 아동, 청소년의 개인 및 집단적 성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검사지는 기본적으로 문부과학성이 제작한 「학습지도요령 제3장 도덕」에 명시된 도덕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이해, 실천되고 있는 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질문

* 松原(2002)의 저서 「心理テスト法入門」 pp. 278-281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지형식이 아닌, 테스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도덕에 관한 문제성을 지닌 다양한 생활장면을 제시하여 이러한 장면들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지를 검사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도덕성에 대한 측정내용으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총15개 항목, 3-4학년은 18개항목, 5-6학년은 22개 항목, 그리고 중학생은 2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학습지도요령 제3장 도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5-6년의 경우에는 사고와 절도, 용기와 노력, 자유규율, 명랑성실, 창의진취, 개성존중, 예의, 친절과 배려, 우정, 겸허와 관용, 감사, 자연동식물보호, 생명존중, 경건, 역할자각 및 책임,公德심, 규제존중, 권리의무, 공정공평, 근로와 봉사, 가정애, 애교심, 향토애 및 애국심, 국제이해 및 인류애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2) 도덕성진단검사(HEART)(이하, 하트)

하트는 종래의 심리학 연구에서 학습지도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덕교육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검사지는 학습지도요령에 의거하여 총 4가지 영역별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분류한 배려, 자기확립, 생활규범에 대하여 각 항목별 도덕성의 달성 정도와 실현 정도를 행동경향을 통해 검사한다.

구체적으로 검사지는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는 도덕성의 내면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면의 그림을 제시하여 확인한다. 또한 내면적 특성을 I 욕구충족, II 타자지향, III 규범준수, IV 자율애타(愛他)의 4가지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응답은 4지선택형으로 하며, 항목수는 초등학교 1·2학년용은 14개 항목, 3·4학년용은 20개 항목, 5·6학년용은 22개 항목 그리고 중학생용은 2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는 도덕성의 행동경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문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설문은 각각 질문내용에 대하여 언제나, 자주, 가끔, 없음

의 4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용은 40개 항목, 초등학교 3·4학년용은 48개 항목, 초등학교 5·6학년용은 53개 항목 그리고 중학생용은 6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용은 1992년에 중학생용은 1996년에 개발되었다.

4. 우수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 사례

1)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의 실현(중학생용)

① 주제선정이유

전국에서 노숙자들의 1/3이 생활하는 오사카(大阪)시에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노숙자들의 존재는 매우 일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노숙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차별과 편견이 청소년들에 의한 노숙자들의 장난, 습격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오사카시에서는 청소년들의 노숙자들에 대한 살인을 포함한 습격, 장난이 오랫동안 끊이지 않았다. 습격으로 인해 피해자인 노숙자들은 심신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습격의 가해자인 청소년들도 마음에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습격은 둘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노숙자들에게 장난과 습격을 가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청소년들의 무지와 편견이 노숙자들에 대한 장난과 습격을 가하는 원인의 하나라고 했을 때 노숙자들을 ‘얕’으로 인해 장난과 습격을 어느 정도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 학교에서 노숙자인권학습에 실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수업은 습격으로 인해 빼앗긴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었는지를 생 각해 봄으로 인해 노숙자도 우리들과 같은 소중한 생명을 가진 ‘한명

의 인간’ 이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단순히 생명의 소중함과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몰랐다’ 는 것이 자신에게 차별과 편견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깨달아 평소의 생활에서 자신과 노숙자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②자료의 준비

실제로 노숙자 습격사건을 다룬 책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자료로 사용한다. 자료를 통하여 노숙자들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생명을 지닌 ‘사람’ 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하며, 사회에서 노숙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그들에 대한 습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③수업의 전개

	학습활동	발문 및 예상질문	유의점
도입	- 노숙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발표 - 청소년들이 주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노숙자’ 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 무섭다, 더럽다, 게으르다, 자업자득, 패배자, 실업자, 제멋대로다 등 ‘노숙자’ 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 자료의 등장인물이 노숙자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의견 교환하기	- 수업전에 무기명으로 설문조사 실시 - 청소년들의 의견을 부정하지 않으며, 교사도 청소년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솔직히 고백할 것
전개	자료 읽기(25분)	자료를 제시, 교사가 읽어주기	학습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읽어주기
	등장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자료에 등장하는 노숙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감상 소개, 교환	등장인물에 대한 감상, 의견을 가지게 된 구체적인 장면을 발표하도록 유도할 것
	청소년들의 노숙자 습격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 왜, 청소년들은 노숙자를 습격한 것일까? - 쓰레기, 쓰레기 청소, 머리가 이상하다 - 왜, 청소년들은 노숙자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로보고 있는 것일까? - 더럽다, 도로나 공원에서 자고 있다.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다, 도움이 안된다.	구체적인 대사를 중심으로 발표를 유도하며, 청소년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
	청소년들이 습격으로 인해 빼앗은 생	습격당한 노숙자를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 노숙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노숙’ 은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지 그

	명이 어떤 생명이었는지 생각해 보기	- 너무 슬프다, 많은 사람들이 추도집회에 참석했다 • 왜, 습격당한 노숙자를 알고 있던 사람에게 죽음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 청소년이 '노숙자' 를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네요.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며, '노숙자' 들은 모두 똑같은 사람이 아닌 각자 개성과 인격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일깨워줄 것
종료	• 감상문 쓰기		

※ 설문조사 질문내용

- 공원이나 도로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왜, 노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노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같이 활동을 해 본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게 언제였나요?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 중고생이나 청소년들에 의한 노숙자들에 대한 괴롭힘이나 습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에 대한 괴롭힘이나 습격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밖에 노숙자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알고 있는 점들에 대해 써주세요.

2) 노인들과의 교류체험을 통한 지역청소활동

이 체험활동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노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복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강조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연대와 배려심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습관화를 통하여 주변환경 및 지역사회의 현안들에게 대해 관심을 가지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① 주요활동

-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모임과의 교류
 - 4학년이상 모든 학생들이 차며하며, 학급별로 년 1회 실시하며, 종합적 학습시간을 활용
 - 교류회에 참여하기 전에 봉사활동모임의 활동내용에 대해 사전에 조사,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 이전에 참여한 자원봉사활동의 경험 및 성과를 회상하여, 이번 체험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 봉사활동모임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분들을 교류회 장소까지 안내하며,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노인과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배려심을 배양한다.
 - 교류회 때, 노래, 댄스, 악기연주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에 대한 노인분들의 감상을 사후에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에게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자부심 및 가치를 일깨워 줄 것
 - 사후 지도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감상문을 쓰게 하여 감상문을 교내 게시판에 소개하며, 나아가 지역 및 국가차원의 복지현황 및 실태, 건의사항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 ‘일본에서 제일 깨끗한 마을만들기’ 청소활동
 - 전학년이 참여하며, 저학년은 교내청소, 고학년은 통학로 주변 청소. 종합적 학습시간을 활용
 - 1,2학년은 교내 쓰레기 줍기, 3,4학년은 학교에서 가까운 통학로 주변 쓰레기 줍기, 5,6학년은 지역내 통학로 및 공원 등에서 쓰레기 줍기
 - 사전학습시에 교내식당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관찰하며, 분리수거의 중요성 및 쓰레기 줄이기 방법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 쓰레기 버리지 않기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내에 설치

- 사후지도에 있어서는 이번 경험을 통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급식위원회에 참여하여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아울러 교내 쓰레기 줍기 및 재활용 동아리를 만드는데 지원

② 활동의 성과

자원봉사활동모임과의 교류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작성한 감상문에서 ‘앞으로 노인들에게 보다 더 친절하게 대하고 싶다’, ‘노인들을 도와주는 법에 대해 배웠다’ 등과 같은 의견이 다수 있었다. 학부모들에게서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로 교류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공경심, 배려심 그리고 노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길러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청소활동의 성과로서는 먼저 교내에 쓰레기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즉, 쓰레기줍기활동을 통하여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으로 여겨지며, 이번 체험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청소년모임에 참여하게 된 청소년들도 상당수 있었다.

5. 우리나라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시사점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일본은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을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도덕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검토 및 분석내용에 기초하여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 도덕교육 및 도덕성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에서는 도덕교육에서 청소년들의 도덕성의 실태는 파악하되, 평가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습지도요령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도덕성 함양을 교육의 중요목적으로 명시하고 있

으면서도, ‘도덕’을 교과목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수량적으로 평가할 필요도 이유도 없으며, 실제적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측정하여, 점수화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일부 비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도덕성검사는 있으나 공식적으로 학교단위에서 채용하고 있는 도덕성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도덕교육이 「도덕 시간」에 국한되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습지도요령에 보면, 각 급 학교는 연간 도덕교육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어시간에 있어서의 도덕교육, 사회 및 이과, 체육시간에 있어서의 도덕교육 연계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학습지도요령 도덕편」에는 ‘국어시간에는 국어를 적절히 표현하며,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육성한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힘을 기름과 동시에 사고력 및 상상력, 언어감각을 배양하여, 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국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표현하는 능력의 배양은 도덕교육의 추진에 있어 그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고력 및 상상력 그리고 언어감각의 배양은 도덕적 심성 및 도덕적 판단력을 기르는 기본이 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교과서 중심의 이론형 도덕교육이 아닌 체험활동 등을 활용한 체험형 도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도덕교육에는 교과서가 없다. 보조교재로 「마음의 노트」가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강제가 아닌 자율적 판단에 따라 활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학습지도요령에서도 도덕적 지식이 아닌 도덕적 실천력과 도덕적 판단력의 배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정부는 청소년들의 도덕교육을 생활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 행동특성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종합적 학습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인간관계의 중요성 및 존경심, 배려심의 배양, 직업체험활동을 통한 노동의 중요성 및 가치의 인식 그리고 노숙자, 장애인, 노인 등을 비롯

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발표회를 통하여 생명 및 인권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내용을 중점화하고 있다는 점과 도덕수업을 공개수업화하여 도덕교육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을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덕시간」이 하나의 독립된 교과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학교별로 ‘도덕교육추진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일본 정부의 도덕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를 엿볼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石堂常世(2009), 改正教育基本法と道德教育の新展開についてー「心の教育」という徳育の限界を問う, 白鳳大学教育学部論集 3(1), 21-44.
- 押谷由夫(2008), 教育政策における道德教育の理念と方法に関する考察, 日本教育社会学会大会発表要旨集録 60, 375-376
- 押谷由夫(2008), 転換期における日本の道德教育ー教育改革の動向を踏まえて, 日本教育学会大会発表要項 67, 166-167.
- 京都市総合教育センター・カリキュラム開発支援センター(2009), 中学校道德実践事例集
- 橋迫和幸(2009), 今日における道德教育の創造的展開のための課題と展望ー新学習指導要領「道德」の検討を中心に, 宮崎大学教育文化学部紀要 教育科学 21: 57-78.
- 馬新媛, 西村正登(2009) 近代日本における道德教育の変遷, 研究論叢 人文科学・社会科学 58(1), 75-86.
- 松原達哉(2002), 心理テスト法入門: 基礎知識と技法習得のために, 日本文化科学社.
- 文部科学省(2008), 小学校学習指導要領案.
- 文部科学省(2008), 中学校学習指導要領案.
- 文部科学省(2011), 心のノート 小学校1・2年.
- 文部科学省(2011), 心のノート 小学校3・4年.
- 文部科学省(2011), 心のノート 小学校5・6年.
- 文部科学省(2011), 心のノート 中学校.
- 横浜市教育委員会(2011), 浜版学習指導要領指導資料 道德編, ぎょうせい.



발표 3

독일의 도덕성 교육 및 프로그램 현황과 우수사례

김영래 교수(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I. 들어가기

독일인들은 전통적으로—칸트 등의 영향으로—여타의 서구국가의 국민들보다 개인적 사회적 삶에 있어서 인간다운 덕성으로서의 도덕을 중시해왔다. 이러한 전통은 자연스럽게 교육에 반영되었으며, 서구사회에서 학문적, 과학적 교육학의 창시자로 간주되고 있는 헤르바르트의 대표 저작 『일반교육학』에도 ‘강한 도덕적 품성의 도야’가 교육의 최고 목적으로 설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 시대와 그 이후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빌헬름3세 시대에 와서 교육을 부국강병을 위한 인재양성의 수단으로 인식한 결과 도덕교육은 크게 위축되었다. 독일인들은 급기야 나치시대와 2차 세계대전이라는 흑독한 시련을 겪고서 도덕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기술과 학문은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었으나, 그것은 인간이 없는 기술과 학문이었기에 아우슈비츠의 대학살 같은 미증유의 범죄가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흑독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인들은 깊이 있는 사고와 인간다운 덕성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지식인을 키우는 교육을 가장 경계하게 되었다(박성숙, 2011b: 231).

II. 독일의 학교교육에서 도덕성 교육의 위치와 의미

독일 도덕성 교육의 특이한 점은 특정 교과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수업과목에 윤리과목이 있지만 종교(기독교)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만 이수하게 한다는 점도 특이하다.

그렇다면 학교교육 전체 틀 안에서 도덕성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떠오른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일의 사회-문화적, 정신적 전통과 이와 맞물려 있는 독일적인 사고방식과 논리, 마인드로 소급해야 한다고 본다.

1. 독일의 도덕의식을 유지시키는 힘: 담론사회

주지하다시피 독일은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한 나라이며, 특히 학술과 문화, 교육에 관한 사안은 주정부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독일연방소속 16개주마다 학교교육이 다르다. 그러나 학교교육에 대한 연방차원의 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이에 대해 논의하는 주정부교육부장관회의(Kultusministerkonferenz)가 정례화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의 보편적인 도덕성 교육의 모습을 그려 보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16개 주정부가 독일의 양대 정당인 기민당(보수정당) 정부냐, 사민당(진보정당)정부냐에 따라 학교교육방식에 차이가 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학교교육에 관한 어느 정도의 독일적인 사고방식과 논리, 마인드가 있으며, 이것이 독일의 학교교육, 그리고 도덕교육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학교교육에서 수업의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독일 학교교육의 알맹이를 빼버리는 격이 된다. 왜냐하면 독일학교교육에 있어서는 방법적, 기술적 측면(스킬)보다도, 교사들이 의식적으로 지니고 있는 교육에 대한 어느 정도 이상의 합의된 원칙 또는 신조가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는 독일사회에 남아있는 관념론적인 전통의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념론적 전통에서 보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실의 차원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관적인 의미의 차원이다. 실제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사실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지

* 독일 헌법 제 70조 1항은 “각 주들은 헌법이 연방에 위임하고 있는 입법권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입법할 권한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연방정부가 대학제도(제 75조 1a항), 직업훈련과 학문연구 등에 대하여 입법할 수 있다는 것(74조 13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종교교육의 준의무화(제 7조2, 3항), 사립학교설립의 권리(제7조 4,5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입법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교육에 대한 연방차원의 조정은 보통 연방정부가 직접관여하지 않고 각 주정부 교육부장관들로 구성되는 ‘교육부장관협의회’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교육부장관협의회는 입법권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각 주정부의 교육정책들을 검토하고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에 대한 조정방안을 결정한다. 이러한 교육부장관협의회 결의사항은 주정부가 교육정책을 법제화하고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지침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교육부장관협의회는 각주의 교육정책의 획일성을 추구하지는 않으며, 다만 독일연방공화국 안에서 학교교육의 공통성과 비교가능성(Vergleichbarkeit)을 위한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그친다.

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념(지식, 취향, 동기, 흥미 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물리적으로는 동일할 수 있는 어떤 사태에 대하여 상이하게 지각할 수 있고, 상이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의미들이 개인적, 사회적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사회에는 사실의 차원과 의미의 차원 사이의 균형을 산출하기 위한 담론적 논의가 학계와, 정치계, 언론계는 물론이고, 직업세계와 대중문화, 일상적 삶의 세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있다. 독일사회는 가히 ‘담론사회(Diskursgesellschaft)’라고 부를 만하다. 이러한 담론화를 뒷받침하는 것이 독일의 독서문화와 성숙된 토론문화이다. 독일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상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의 쉬지 않고 책을 읽어야 하며, 취미(미적 취향)를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의 그룹에 끼어 친교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독일 사람들의 모임에 가 보면, 그때그때 떠오르는 주제들에 대해서 해박한 식견을 쏟아내면서 대화를 흥미롭게 이끌어가는 달변가들을 자주 보게 된다.

독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훈련되며,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한다. 이러한 독일사회의 말의 문화, 로고스의 문화(Logos-Kultur)는 매스컴의 발달에 힘입어 활발한 토론문화를 발달시켰다. 독일의 수많은 TV채널들을 돌려보면 곳곳에서 토론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토론거리도 뭇법하지 않은 시시콜콜한 주제를 걸어놓고 장시간 토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토론의 사회자들은 토론자들 간에 감정적 대립이나 인신공격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사실과 논리적 타당성에 충실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중재한다. 그렇게 토론을 진행시키다보면 중국에는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고 합당한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불리한 입장에 처한 사람은 패배를 자인하고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면서 토론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요컨대 독일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신조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표현되고 교환되고 조정되면서 사회적 의견과 신조들로 형성되어가는 활발한 소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도출되고 합의가 도출되면 많은 경우에 (개인적, 집단적)신조들로 이행(移行)된다. 왜냐하면 다수의 독일 사람들은 이러한 공동의 합의를 통해

서 도출된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교양인으로써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사람들은 또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며,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드러내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경원시되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신조는 개인의 행위의 원칙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가치 지향적, 도덕적 요소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독일사회에서는 도덕성이 개인 삶과 사회적 삶의 정체성과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독일사회의 이러한 담론문화 속에서 교육에 대한 담론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여러 가지 교육관련 사안들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학자들과 언론인, 정치인, 각계의 전문가들이 현상에 대한 진단과 의견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화의 과정이 교육현장에 반영됨은 물론이다. 학교에서도 전공별, 학년별 교사위원회, 학부모위원회를 비롯하여 사안별로 매우 다양한 위원회들이 계속해서 개최되어 그때그때 떠오르는 교육 사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지며, 이것이 교육현장을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살아있는 담론구조가 자칫 기존 관행이나 사실세계의 요구에 매몰될 수 있는 현장교육을—인간 삶과 세계에 대한 폭넓은 전망으로부터 얻어지는—의미의 차원으로 접근시키는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사회의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만이 아래에서 논의하게 될 독일의 도덕성 교육의 논리와 이에 따른 실제 수업의 작동가능성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교육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는 도덕성

아이들의 도덕성은 부모나 교육자의 의도대로 주물러질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어려서부터 처해 있는 심리적, 물리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한국의 경쟁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지나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쾌활한 삶을 빼앗기고 있고, 점수로 비교당하면서 마음이 멎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덕성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기란 애초에 힘들다. 그리하여 독일의 학교는 기본적으로 경쟁 없는 수업을 추구한다. 성적표에 과목별 평점만 있고 등수가 없으며, 학교 수업도 학습

력이 뛰어난 학생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중간 이하의 학습력을 지닌 아이들의 학업을 도와주는 데에 수업의 중점이 주어진다. 한국 같으면 역차별이라고 항의가 제기될 상황이다. 그러므로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차별받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다. 독일의 학교들은 또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최대한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선행학습이나 예습은 금기시 되며, 과제도 많이 내주지 않는다. 과제도 집에 가서 하기보다 학교에서 과제시간을 1-2시간 따로 주어 해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오후 1-3시에 귀가하면(김나지움의 경우) 그 이후는 원칙적으로 완전한 자유시간이다. 부모의 간섭도 거의 없음은 물론이다. 또한 시험날짜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을 방지한다. 독일교육이 이렇듯 너무 느슨해서 PISA테스트에서 저조한 성적이 나오는 것이며, 이런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독일이 글로벌경쟁에서 지고 말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독일정치인들도 있다. 그러나 독일학교의 PISA테스트 결과가 저조한 것은 독일학교의 평가방식과 PISA의 5지선다형 평가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며, 독일의 수업이 지식암기보다 사고력의 양성에 초점이 있으므로 PISA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독일학교교육이 가능한 이유는 독일사회와 교육계에 학교생활이 아이들의 건강한 인성의 발달을 해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합의가 고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 인간으로서의 자긍심과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약자를 대할 때 배려해야 한다는 것, 약속을 준수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 공동체 질서와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태도들이 신조로 정립되어 가정과 교실, 사회 속에서 작동되고 있다.

3. 사고력의 양성에 주력하는 수업방식과 평가방식

독일 학교의 수업을 참관해보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대답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손을 드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교사가 교과내용과 관련된 단순 지식을 물을 때도 있다(지리나 역사

시간에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 등).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순편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다. 이집트의 위치, 역사, 유적지, 종교, 생활양식 등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줄줄이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며, 아이들의 답변내용은 필요한 경우 교사에 의해 보충이 된다.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예컨대 회교권 여성들이 히잡을 머리에 쓰는 것 대한 견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나 근거 등을 묻는 경우도 많다. 교사의 질문에 대해 학생이 엉뚱한 답을 하더라도 그것이 장난삼아 하는 것이거나 수업을 방해할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면 책망당하거나 무시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자발성과 다양한 개성이 충분히 존중된다. 이러한 수업분위기 속에서 정답은 중요하지 않다. 특히 인문, 사회계 과목의 경우 정답을 말하는 것 보다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조리있게 표현하느냐가 중시되며, 시험도 그러한 능력을 주로 측정한다.

독일학교에서 수업은 학생들 각자가 자신의 사고를 자유롭게 발전시키고 확장시켜가는 과정이다. 독일학교에서 예습이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이유는 정답을 미리 알고 있으면 탐구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가 아이들의 생각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을 던졌는데 누군가 엉무새처럼 대답을 해 버린다면 생각할 기회를 박탈당한 다른 아이들은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박성숙, 2011a: 35).

독일학교 수업이 아이들의 사고력 형성을 중시하지만 추상적인 사고력의 양성에 치우치는 것은 아니다. 논리적 근거뿐만 아니라 사실에 충실한 사고전개능력이 중시된다. 사실세계의 각 영역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풍부한 감각을 익히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잘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잘 조직하는 것도 수업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사회와 과학이 합쳐진 사실수업(Sachunterricht)을 통하여, 그리고 김나지움에서는 역사, 지리, 물리, 생물 등의 과목 등을 통하여 사실세계에 대한 학습이 주로 이루어진다. 이들 과목들은 서적중심의 지식학습보다는 블록수업(여러 시간을 하루나 이틀에 몰아서 하는 수업방식)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팀 과제나 프로젝트학습으로 이어진다.

어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취지의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평가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시도도 평가 앞에서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독일학교의 평가의 주안점은 미리 정해진 답을 맞추는 것에 있지 않고,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전개하는 능력,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조리있게 표현하는 능력에 있으므로, 주로 주관식 서술형의 지필고사나 구두시험, 또는 발표 등으로 성적을 매긴다. 따라서 평가자인 교사의 주관이 크게 개입된다. 대체로 50%정도는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 이러한 평가방식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작동되는 것이 신기하지만, 교사들은 최대한 공정하고 치밀한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의제기에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주관식 서술형 시험의 답안을 보통 A4로 2-5매 정도를 작성해서 내는데(시험 시간도 2-3시간 되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에게는 보통 두 과목을 가르치면서 한 학기에 중간과 기말시험 채점을 하는 일이 가장 힘든 업무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시험이 끝나면 교사들에게 채점할 시간을 주기 위해 1-2주 방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 한 가지 특기할만한 점은 최종성적을 내기 이전에 성적이 학생에게 고지가 되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박성숙, 2011b: 214). 그러나 실제로 재도전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독일학생들은 학점에 목을 매지 않을 뿐 아니라, 재도전을 해도 더 나은 평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4. 생활교육과 자연친화적 교육을 통한 도덕성 함양

독일의 학교교육의 목표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를 가르치며, 수영은 인명구조요원자격증, 자전거는 자전거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 외에 각종 스포츠(축구, 배구, 농구, 요트, 스키 등)와 예술교육이 단계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여가를 즐겁게 향유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독일인들의 자연사랑은 유별나다. 유럽국가들 가운데에서도 독일은 녹색당이 가장 표를 많이 얻는 나라에 속한다. 이것이 학교교육에 반영되어 자연을 체험하면서 배우고,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교과수

업이나 프로젝트수업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생활교육과 자연친화적 교육도 넓은 의미의 도덕교육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5. 문화적, 예술적 소양의 계발을 통한 도덕성 함양

독일 학교교육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문화적, 예술적 소양을 풍부하게 길러주기 위해서 다각적인 배려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기초학교(4년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지자체에서 거의 무료로 제공하는 음악교육기관에 다닌다.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음악교육을 계속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학교 밖의 음악교육기관에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음악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의 악기를 수준급으로 다루는 독일인들이 적지 않다. 또한 학생들이 각종 문화행사(전시회, 연주회, 연극 등)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수업과 연계시키는 경우도 자주 있으며, 특히 각종 전통축제 등에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연례축제인 카니발행진에 나가기 위해서는 몇 달 정도 꾸준히 연습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이들은 문화적, 민족적 연대감을 느끼고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게 된다. 그리고 성장세대들로 하여금 문화활동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 있는 다양한 (문화적, 도덕적, 종교적) 가치들을 느끼게 하거나 교사의 지도를 통하여 깨닫도록 하는 데에 또한 문화교육의 주안점이 있다.

유럽의 인문주의적 전통을 계승한 헤르바르트¹⁾는 도덕성의 양성을 위해 (정서적) 공감과 취미[= 심미적 감각]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즉 도덕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장세대 자신이 스스로 바람직한 도덕성을 형성하고자 자발적으로 동기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요소가 취미(미적 감각)와 공감이라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취미 즉, 도덕적 요소들에 대한 심미적 지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특히 흥미를 끈다. 요약컨대, 예술과 문화교육을 통하여 풍부하게 계발된 예술적, 문화적 소양을 조화롭게 내면화시켜 아름답고 선량한 취향과 공감을 길러내고자 하는 인문주의적 교육의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독일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교육도 넓은 의미의 도덕성 함양교육이라고 하겠다.

III. 독일의 윤리 교육과정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독일학교에서의 윤리과목은 종교(기독교)과목에 대한 대체교과로 제공되고 있다. 초등과정(4년제 기초학교)에서부터 김나지움(또는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에 이르기까지 종교 또는 윤리과목은 주당 2시간이 할당된다. 본 논고에서는 독일 중부 헤센(Hessen)주의 교육서버(Bildungsserver)에 올려져 있는 윤리교육과정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http://lernarchiv.bildung.hessen.de/sek_i/ethik/gym/index.html/http://lernarchiv.bildung.hessen.de/sek_ii/ethik/kurseethik/index.html). 아래의 표에서 보다시피 11학년(17세)부터는 윤리과목의 주제가 축소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그 이후는 윤리과목의 필요성이 감소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의 전체 과정 안에 도덕적인 합의와 원칙들이 이미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나지움의 고학년(11-13학년)에는 보통 김나지움 졸업시험이자 동시에 대학입학자격시험인 아비투어(Abitur)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이 시기에 주요 이론교과에 대한 집중적인 수업이 이루어진다.

학년구분	대 주 제	
5학년(만 11세)	1	자유(1): 인간은 자연적, 사회적 의존관계 안에서 살고 있다.
	2	인간의 존엄성(1): 자신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
	3	종교(1): 종교들의 커다란 이야기들
	4	진리와 인식-진실과 거짓 (1): 사기
6학년(만 12세)	1	양심과 정체성(1): 선과 악
	2	사랑(1)/우정
	3	권리와 정의(1): 동일하게 동일한, 불평등하게 불평등한
	4	인간상(1): 나는 어떤 사람이고자 하는가?
7학년(만 13세)	1	자유(2): 관심의 상충에 있어서의 자유
	2	인간의 존엄성(2): 수단으로서의, 목적으로서의 인간
	3	종교(2)/종교적 표현으로서의 의식(儀式)
	4	진리와 인식-진실과 거짓(2)/검토
8학년(만 14세)	1	양심과 정체성(2): 자기 확인-나와 타인들
	2	사랑(2): 우정과 성(性)

	3	권리와 정의(2): 권리/자유와 권리의 평등
	4	인간상들(2): 세계에 대한 관심
9학년(만15세)	1	자유(3): 자유는 모든 인간이 이성의 요구 아래에서 자기를 규정함을 의미한다
	2	인간의 존엄성(3): 인권의 확보와 회복
	3	종교(3): 인간이해와 세계이해
	4	진리와 인식-진실과 거짓(3)/해결모델
10학년(만16세)	1	양심과 정체성(3): 윤리적 정체성과 책임
	2	사랑(3): 사회와 국가 안에서의 삶의 형식과 법률적 형식으로서의 결혼과 동반자관계
	3	권리와 정의(3): 개인적 행복, 정의, 공동의 변형
	4	인간상들(3):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5	임의적으로: 윤리란 무엇인가?: 5학년부터 10학년까지 내용들에 대한 성찰
11학년(만17세)	1	행복
	2	삶에 대한 종교적 의미부여
12학년(만18세)	1	철학과 학문 속에 나타난 인간상들
	2	이성과 양심
13학년(만19세)	1	사회와 국가, 국가연합에 있어서의 권리와 정의
	2	자연과 기술

이하에는 위의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단계별 세부 교육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나 보고서의 틀로 볼 때, 전체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범례적으로 5학년의 1, 2, 4단원과 6학년의 1단원, 11학년의 1, 2단원을 소개한다.

5학년 제1주제	자유(1): 인간은 자연적, 사회적 의존관계 안에서 살고 있다.
근거	인간의 행위자유는 자신의 필요 범위 안에서 전개된다. 그는 필요에 따라 자신의 행위공간을 확보하며 이를 이용한다. 사회적 접촉의 관계 속에서 그는 가족관계와 친구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 호감과 우정을 느끼면서 인간은 타인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자 하게 된다.
주요 수업내용과 과제	자유는 인간의 필요(결핍)을 느끼면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필요(결핍)가 그의 사고나 행위에 대하여 한계를 정하기도 하고 활동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결핍의 존재로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물질적,

	비물질적 조건들에 의존한다. 음식, 의복, 주택 환경보호, 지속성 개인적 호감, 사회적 결속 의존성 -자연 자원에 대한(생필품, 건강) -타인에 대한(부모, 가족, 친구, 동료, 상사, 고용주) -역사와 전통(문화, 종교, 사회화, 교육) 행위공간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연결되어 있다: 누구나 자신의 근심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며, 그를 배려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건강한 환경세계를 필요로 한다. 사랑, 배려, 호의 인정, 이해, 협력 급부(기여), 반대급부, 노동 인간의 천성 -동물적 천성과 사회적 천성 -언어와 역사 -의지와 행위자유 인간의 자연적, 사회적 의존관계는 인간을 공동체적 행위에 결부시키며, 이러한 공동체적 행위는 인간을 협력과 연대적인 단결로 이끈다. 이러한 결속은 인간을 긴 안목으로 볼 때 그의 행위를 제약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능성을 확장시킨다. 가족 출생, 유년기, 성년, 노년 부모와 성인, 교사와 상사에 대한 순종 병자 및 노인 돌보기 노숙자, 궁핍 노동 분배 저장/저축 교우관계는 학생의 경험영역에서 상호적인 호감, 상호적인 인정, 존중, 애호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적 관계로 나타난다. 구별: -친구, 경쟁자, 적 등 -지인, 동무, 친구 -이기적인 또는 이기적이 아닌 교우관계 -의존적인(복종적인), 또는 이성에 의해 이끌어지는 교우관계
--	--

	감정이입, 공감 교우관계에 있어서의 좋은 체험과 환멸 싸움, 갈등, 타협
--	---

5학년 제2주제	인간의 존엄성(1): 자신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
근거	의무는 외부의 강제력이나 내적 필연성에 의하여 강제된 행동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과제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의무를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존엄성을 지닌다.
주요 수업내용과 과제	인간이 자연과 사회, 역사와 다층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인을 역사적으로 형성된 관계망에 연결시킨다. 이 관계망으로부터 인간에게 구속력 있는 과제(의무)가 주어진다. 이러한 과제는 그의 인간적 자유와—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불리할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양심을 통해서 응답을 할 수 있는(책임질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만이 의무지어질 수 있다. 의무는 외부의 강제가 아닌 자유와 이성을 통하여, 자율(자기법칙부여)을 통해서 제어되는 인간의 공동생활의 이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생활은 인간적 현신이 없이는 도달될 수 없는 것이다. 제한된 사회적 관계 안의 구속력 있는 과제(의무), 강제된 의무와 스스로 떠맡은 의무 -가족, 친척 -학교 -친구, 친척, 낯선 사람 -단체 -포레그룹(보이스카웃) -운동경기 자유와 존엄 양심과 이성 외적 강제와 내적 불가피성 게임규칙 의무와 돌봄: 동물과의 교제 성공한 삶의 계획의 사례들은 타인의 안녕에 대한 방향성이나 의무에서 나온 행위가 실천을 주도하는 동기부여상태를 보여준다. 의무, 공로가 많은 행위, 종교적 구원의 길들 기독교와 불교 성직자의 기원(祈願) 종교적 의무들 인류의 은인들 성장세대는 개인적 성장과정에서 자유와 자기책임을 점점 더 많이 인정하게 된다. 이것은 외부의 높아진 기대 및 스스로 책임을 떠맡는

	능력과 결부되어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위생, 건강, 순수성, 자기인식, 자기통제, 자신의 능력들의 양성, 인내 타인들에 대한 의무: 진실성, 호의, 존중, 공평무사, 선행, 감사, 공감, 연민, 조력 의무와 경향성(욕구) -권리와 의무 -관습과 규칙 규칙발견과 규칙합의의 길
--	---

5학년 제4주제	진리와 인식-진실과 거짓(1): 사기
근거	인간의 인식능력은 감성적 지각과 지성에 근거한다. 또한 실재에 대한 우리의 추측을 검토할 수 있는 준비(능력)도 필요하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진실한 태도가 필수적 조건이다.
주요 수업내용과 과제	우리가 세계 안에서 방향설정을 하며 타인들과 교제할 수 있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오류에 빠지기 쉽고 제약된 감각에 의지한다. 우리는 자신의 감각기관의 능력에 의지하여 실제의 부분들만을 지각한다. 우리의 지각능력은 관점적이고 따라서 불가피하게 제약되어 있다. 감각기관이 결여되어 있거나 결함이 있는 맹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은 어떻게 방향설정을 하는가? 우리는 감각기관의 능력만큼 세계를 지각한다: 박쥐, 별, 심해어의 세계지각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실재의 부분영역들의 예: 전기나 방사선 등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정확한 전달을 필요로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인간은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말이 진실해야 한다는 진실성의 의무와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한 진실이 전달되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은 구별되어야 한다. 진실과 거짓 속임, 허풍, 떠벌림, 호언장담, 불가피한 거짓 진실이 아닌, 불완전한 전달에 대한 상충되는 근거들: -이기심, 타인들의 등한시 -자신의 이득, 타인의 손해 -반감지 않은 결과에 대한 근심 -배려(상처를 주는 진실의 경우): 억측된 연민에서 나온 거짓 누구나 모든 것을 다르게 본다. 진실(진리)에 대한 물음은 우리의 개

	인의 주관적 지평에서 얻어진 지각과 관련되어 있다. 한 사건이나 어떤 자연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참인지 아닌지, 또는 그것이 이리이러하게 진행되었는지 아닌지를 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사태들의 해명, 교실 안에서 일어난 불분명한 사건에 대한 해명 증언의 신뢰성과 검토 사실확인의 방법들 관용은 자신의 시각의 한계를 인정하며, 진실발견의 다양한 길을 옹호한다. 관용의 한계는 관용의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 관용의 한계(지각의 부인, 사실의 거부, 견해를 함구함, 타인의 지각 방식의 배제 등)
--	--

6학년 제1주제	양심과 정체성(1): 선과 악
근거	양심은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라는 내면적 요구로 경험된다. 선에 대한 계명과 악에 대한 금칙은 사회적 문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주요 수업내용과 과제	양심은 선한 양심과 양심의 가책으로 의식된다. 양심은 선을 명령하고 악을 금하는 내면의 음성으로 경험된다. 선은 보상을 가져오고 악은 벌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왜 하나는 처벌되고, 다른 하나는 상을 받느냐 하는 것이다. 명령과 금지는 합리적인 논의연관의 틀 안에서 근거지어질 필요가 있다. 자신의 행동 안에서 인간은 종속과 적응에서 모순과 저항에 까지 이르는 행동양식의 스펙트럼을 통하여 명령과 금지의 요구에 응답한다. 이러한 행동양식도 또한 검토와 정당화가 필요하다. 학생의 판단 안에서의 선과 악 선(善)이란 -부모 친구, 상사, 종교적 권위가 선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법률이 정한 것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나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서 모든 타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 양심 -내면의 음성으로서 -신의 음성으로서 -자연의 음성으로서 -교육자의 음성으로서 -경험의 음성으로서 양심의 가책 양심의 오류들

	과실, 벌과 죄, 용서 참회(고해), 고해의 비밀 세계종교들의 지침과 경고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와 불교 여러 문화권에 있어서의 사회적 실천 각 종교들에 공통적인 명령과 금칙 살인, 거짓말, 결혼의 파괴 등 유럽인들에게는 낯선 명령과 금칙 -유대교에 있어서 음식에 대한 지침, -힌두교에 있어서 카스트제도, -이슬람교에 있어 일부다처제 등 성별에 따른 명령과 금칙: 사내아이에게 허용되지만 여아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 보편성의 음성으로서의 양심 양심의 타당성영역: 나와 나의 양심-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선의 보편성: 선이란 모든 사람에게 선이어야 하는 무엇이다.
--	--

11학년 제1주제	행 복
근거	행복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삶, 도덕적인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이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행복에 대한 견해가 존재한다. 행복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파악은 당사자의 삶의 방향설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도덕성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다양한 행복에 대한 견해들을 검토해보고 행복에 대한 이해를 나름대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요 수업내용과 과제	주위에서 발견되는 삶의 계획과 자기 자신의 삶의 계획: 성공적인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타인들의 생각 행복의 문화적, 자연적 조건들 행복 제공을 자처하는 시장(市場); 행복기대의 사유화와 시장화; 성공적인 삶의 계획(플라톤, 고르기아스 등) 물질적, 기술적, 생물학적 가능성의 증대에 기초한 행복약속 대안적 삶의 계획: 의식적 단념; 자연과 조화된 삶 쾌락: 선악의 피안인가? 나르시시즘; 본보기, 팬과 아이돌 자신의 삶의 사회와의 관계 현신; 아타락시아 (초탈, 부동심; 에피쿠로스); 자족(自足)

	인간 행동의 충동력들 사랑, 성공, 부, 소유, 권력, 인정, 안정, 건강, 편안함에 대한 추구 쾌와 불쾌의 동기화 (불쾌와 고통, 분노, 슬픔의 회피; 쾌락, 체험, 기분전환, 재미의 추구) 자아실현 박애주의 행복윤리들 Eudaimonia (Aristoteles); 쾌락주의; 스토아윤리 실용주의; 행동주의적, 정신분석적, 경제적 행복이론들 행복에 대한 항의들 행복의 범위/불쾌의 동기화 행복할 가치가 있음 vs. 행복 외적 실존의 우발성 도전의 원동력으로서의 불만 의무 대 향락 행복의 의미불명료성 불행, 고통, 죽음, 숙명적 불행 등에 대한 대처 임의적 수업내용/과제 행복의 시도: 행복과 도취 도피 중독, 습관성 약물; 병적 쾌감 무리에서 망각되고 포기됨 군중 속의 행복
학습방법/힌트와 설명	문구들을 가지고 콜라주 만들기 행복 프로젝트: 인터뷰기술 (좋은 삶에 대한 의견 수집); 비디오제작 (행복의 이미지에 대한 장면들); 수집된 결과들의 프리젠테이션 문헌분석; 성공한 삶의 계획의 사례에 대한 연구

11학년 제2주제	삶에 대한 종교적 의미부여
근거	종교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삶과 세계의 궁극적 질서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은 도덕적인 삶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실제로 전통시대에는 도덕교육을 대부분 종교가 담당해왔다. 현대사회에 와서 종교가 다원화되고 있으며, 전통종교로부터 이탈하여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 속에서도 종교를 삶의 주요원리로 삼고 있는 사

	람들이 적지 않으며, 다른 원리(과학, 도덕 등)가 종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쉽게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적 경험을 돌아볼 때, 인류는 초월적 경험을 통하여 영적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며, 인간의 영적 삶은 이러한 초월성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종교는 초월성에 대하여 묻고 추구하는 길을 안내함으로써 정신적으로 깊이 있는 삶을 가능케 한다.
주요 수업내용과 과제	종교는 근원적인 세계이해이며 인간이해이다. 텍스트 사례들을 제시 일신교 자연에 대한 탈신화화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로운 책임의 강화 비유적 언어 형상(우상)금지 종교적 그림언어, 특히 창조 종말론 성 - 속 종교공동체 유대교: 신의 선민; 율법에 대한 탈무드적 해석 기독교: 공동체, 교회; 10계명, 기독교 풍습의 사례, 기독교적 사회교리; 이슬람: 움마; 5개의 지주, 율법으로서의 샤리아와 삶의 태도로서의 지하드 종교의 시각에서 본 윤리적 주제들 인간존엄 (인간의 인간화), 인권; 규범, 도덕성, 권리 (자연권); 윤리적 자산: 삶, 자유, 재산 덕: 책임, 정의, 사랑; 국가, 사회, 종교, 세속적 법 양심; 과오와 회개 종교비판 전통사회의 정치적 종교에 대한 비판 예 고대와 근대 계몽가들 (칼 마르크스) 현대의 종교비판 (특히 심리학적인, 구조주의적인 비판) 포이에르바하, 프로이트, 니체, 사르트르 또는 구조주의적-기능주의적 (루만) 비판과 해체주의적 접근 과학주의적 종교비판 진화론적 인식론

	임의적 수업내용/과제 동양의 종교들과 지혜교설들 힌두교 베다 환상으로서의 세계, 다르마(Dharma)와 윤회(Samsara) 다신교 불교 싯다르타의 생애 사성제와 팔정도 삼승 (소승, 대승, 밀교) 종교적 삶(신앙)-자연과학(사실지식)-철학/윤리(방향정립지식) 종교적으로 근거지어진, 자연과학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에서의 윤리적 정초연관들 사이의 긴장 - 현장성있는 논란의 사례 제시 종교의 과학주의적인 근거설정의 사례 종교적 근본주의 성서(경전)의 해석방식의 차이
학습방법/힌트와 설명	각 종교의 종교시설을 방문 (교회, 공동체본부, 청소년센터, 사회적 시설)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인터뷰를 행하고 이를 수업과정에 참작함

IV. 독일의 윤리교과의 수업방법

위에서(II장) 독일학교의 수업은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수업의 목표는 해당시간 주제와 관련된 사고력의 발달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것은 윤리교과 수업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도덕관련 주제에 대하여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의 선정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윤리수업은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획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정부에서는 다만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며, 단위학교와 교사들은 이러한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하되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담당교사가 주제 순서를 바꾸거나 새로운 주제를 추가할 수 있다. 수업에 관한 교사의 재량권은 대략 50%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교사는 아이들의 연령층이나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하

여 아이들이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주제를 선정하면 해당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토론할 수 있도록 프리젠테이션을 한다. 프리젠테이션은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교사자신이 하기도 한다. 특기할만한 것은 독일에는 교육서버(www.bildungsserver.de)가 구축되어 있고, 그 안에 각 주별 교육서버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서버를 통하여 매우 상세하고 풍부한 교육관련 정보들이나 수업자료 등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주제별로 검색하면 해당 수업자료를 곳곳에서 찾아낼 수 있고, 또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과 링크가 되어 있어서 보다 다양한 자료들을 얻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유, 인권, 종교적 관용 등의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자 하면 9.11테러에 대한 자료를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준비된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주제에 대한 관심을 일으킨 후, 몇 가지 기본적인 논점들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학급전체토론, 그룹토론 후 발표 등). 이를 통하여 도덕적 판단력을 연마하고 도덕적 책임의식을 강화시킨다. 특히 선호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토론에 붙이는 것이다.

윤리과목 평가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주제에 대한 팀발표나 클라우주어(주제에 대한 소논문을 작성하는 주관식시험)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클라우주어에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가 단골로 출제된다. 그밖에 학생들에 대한 도덕성 평가 같은 것은 없다.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V. 독일의 도덕성 교육 우수사례: 행복수업

독일의 도덕성교육사례들 가운데에서 최근에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행복수업(Glueckunterricht)’ 이다(<http://www.whs.hd.bw.schule.de/glueck.htm>). 행복수업은 기존의 윤리교과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본래적 의미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1. 행복수업의 개요

1) 행복수업의 취지, 목표: 행복수업은 2007년 9월 하이델베르크 빌리-헬파하 김나지움에서 처음 시도되기 시작했으며, 이 수업의 목표는 개인적인 만족감(persoenliche Zufriedenheit)과 자신감(Selbstsicherheit), 자기책임(Selbstverantwortung)과 사회적 책임(soziale Verantwortung)을 촉진하는 것이다. 수업의 초점은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강화하는 데에 둔다. 청소년들은 행복의 요소들에 대하여 민감해져야 하며, 그들의 지속적인 행복을 위한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음식이 육체적인 욕구의 대상이듯이 행복은 심리적 욕구의 대상이다. 이것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해당된다. 인간사회가 풍요로워진다고 해서 반드시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이미 증명되었다. 또한 자기존중(Selbstachtung), 감정이입/공감능력(Einfuehlungsvermoegen), 우정, 사랑, 영성(Spiritualitaet), 유머, 낙관주의 같은 행복의 요소들은 학습될 수 있다.

정서적, 인지적, 생리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수업은 대학진학의 준비나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는 기존의 학교교육을 보완한다. 기존의 학교교육은 삶의 토대로서의 학문(특히 기술, 의학, 경제)의 중요성의 증대에 맞춰지고 있다. 학교는 이러한 의미에서 도구화되었으며, 단지 학습의 장소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교사의 역할도 학교시스템을 통하여 학생들을 학습으로 이끄는 교수자로 전락하였다.

“교육의 개념은 오늘날 학교의 영역으로 한정되었고, 청소년을 교양과 인간다움을 갖춘 인간으로 교육시킨다는 본래적 의미와 결별하였다”고 빌리-헬파하 학교 교장인 프리츠-슈베르트는 말한다. 행복교과는 청소년의 개인적 소질과 가능성을 수용하고 발전시키면서 그들을 형성시키고 양성시키고자 한다.

이 과목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가족 등의 전통적인 사회적 네트워크가 종래의 규범들, 전통들 행위방식들, 관습 등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상실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토대이며, 온전한 공동체를 위한 기초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개념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에게 실존적인 영역

인 육체, 영혼,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가치창조적인 관계가 경험되어야 한다. 행복은 학습될 수 있으며 행복하고 성공적인 행위 안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 전달되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즉 자신의 육체, 영혼, 행위,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의 삶에 대한 인식의 획득이 인지적, 정서적, 육체적인 면에서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행복에 대한 개인적, 주관적인 이해 때문에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위계를 만들어야 하며, 개개의 과정의 가능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목표들과 그룹별 목표들을 진술하고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그들 자신의 비판적인 반성과 교정에 도움이 된다.

학생성취의 평가의 근거로서 단지 보고서만 사용되며 개인적 목표나 그룹별 목표의 상대적, 또는 절대적 달성의 의미의 추정된 사실상의 진보는 고려되지 않는다.

행복수업은 2년제 경제직업학교와 3년제 경제김나지움에서 먼저 시행되었으며, 이 두 종류의 학교에서 지금까지 50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했다. 여기에는 3개의 코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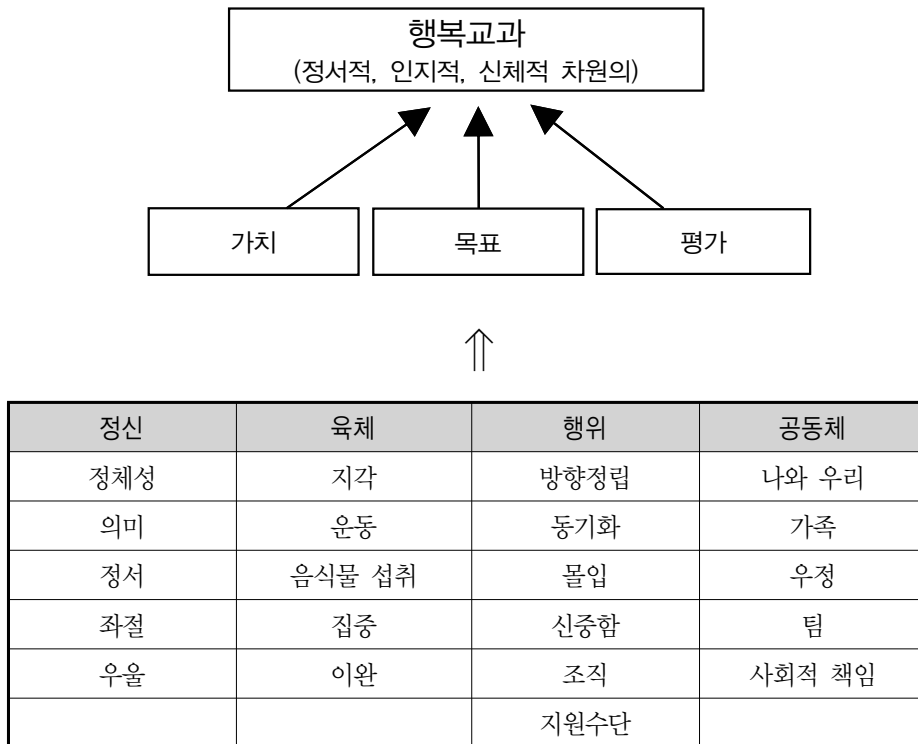
2) 강사진: 이 코스들에는 수많은 외부 인력들, 예컨대 하이텔베르크 극장의 연극배우, 심리치료사, 연극지도자 등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 강사들은 교장과 윤리교사, 생물교사, 체육교사 등의 지원을 받는다.

모든 강사들은 여러 차례의 집중적인 회의를 통하여 수업프로그램을 정밀하게 조율한다. 그리고 외부 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에는 언제나 교사 한명이 참여한다.

3) 학문적인 연구: 행복수업코스들은 하이텔베르크 교육대학교에 의하여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평가된다. 주관교수인 볼프강 크뇌르처는 이 프로젝트에 처음부터 참여하였고, 수업의 일부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행복수업은 요컨대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하는 가치들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표를 정하게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2. 행복수업의 기본 구조



3. 행복수업의 교육과정

학년	행복수업 교육과정	
1학년	실천적 연극작업과 연계된 행위와 프로젝트 지향적 주제수행(HOT)	
	1	생활의 기쁨
	2	자신의 성취에 대한 기쁨
	3	즐거운 식생활과 신체적 안락함
	4	활동하는 신체
	5	표현수단으로서의 신체
	보고서의 작성과 면담	

2학년	실험적 연습을 통한 행위와 프로젝트 지향적 주제수행(HOT)	
	6	정신적 안락
	7	순간의 행복
	8	일상속의 모험
	9	사회생활의 토대로서의 문화와 문화기술
	10	자아와 사회적 책임
	보고서의 작성과 면담	

VI. 독일의 도덕성 교육이 우리나라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정책을 위한 시사점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했다시피, 독일의 도덕교육은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전통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독일식의 도덕교육을 우리나라의 도덕교육과 직접 대비시키거나, 더구나 바로 적용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우리사회도 서구중심의 현대문명의 전개과정을 따라잡아가고 있고, 서구의 이른바 합리성의 문화도 많이 흡수하고 있으므로, 서구교육의 외견상의 장점을 피상적으로 모방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서, 서구교육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토대의 핵심코드와 논리를 학습한다면 서구교육의 장점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본 보고서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1. 무엇보다도 독일의 도덕성 교육의 장점은 현실적인 삶과 유리되지 않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독일사회에서 개인적, 공동체적 삶을 위한 기본적 가치들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수의 독일인들은 사회적 행위는 물론 개인적 차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성적인 행위, 즉 원칙과 근거에 따른 행위, 책임질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성숙한 교양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주입시킨다. 독일인들은 진리와 진실—특히 사회적으로 합의된 진리와 진실—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질서를 이루고자 노력한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고, 이성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고... 요컨대 욕구, 충동이 아닌 이성과 양심이, 거칠고 조야한 야만성이 아닌 문화적으로 세련된 교양이 삶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 지식인들과 사회 지도층들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다.

독일사회의 도덕성을 유지시키는 또 하나의 보루는 기독교이다. 기독교는 서양의 전통문화와 결합되어 있으며, 서양전통문화의 문화가치들과 결합되어 있다. 학교에서 주당 2시간 정도 이수되는 종교과목 시간에는 기독교교리가 가르쳐 질뿐만 아니라 특히 기독교적인 전통문화 속에 들어 있는 가치를 전달하고 이를 실천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독일사회에서는 합리주의 전통과 함께 교회가 도덕성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도덕교육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 도덕적 담론이 어느 수준 이상 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에 도덕적 합의가 작동하지 않는데 성장세대에게만 도덕을 설교하는 식이 된다면 이러한 형태의 도덕교육은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독일의 경우 도덕적인 담론이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것은 문화적 전통과 역사적 경험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한국사회에도 도덕성의 담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전통사회에서는 대체로 보아 유교와 불교가 도덕성의 담론을 담지했던 것인데, 그 역할이 식민지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면서 크게 상실되어 버렸다. 그 뒤에 기독교(개신교와 천주교)가 일정부분 도덕적 담론의 역할을 넘겨받았지만 한국사

회의 급격한 산업화, 자본주의화의 과정 속에서 종교의 상업화 현상이 두드러졌고, 그 결과 종교가 한국사회의 도덕성을 담보하기에는 크게 역부족임을 보여주었다. 현재의 한국사회가 어떤 명확한 도덕적 합의의 틀이나 가치상(價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단지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전통적 도덕적 담론이 식민지시대에 크게 파괴된 데다가 20세기 후반 이후 경제의 논리에 매몰되면서 빈사상태에 빠져버린 한국사회의 도덕적 담론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연대하여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도덕적 담론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덕적 담론의 토대가 되는 문화담론(인문학, 문화, 예술이 중심이 되어 사회과학, 기술공학까지 아우르는)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진흥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교교육과정에서 인문학을 비롯한 문화교육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문화교육이 겨냥하는 것은 특히 아름답고 선의적인 취미(취향, 심미적 감각)와 공감(정서)의 계발이다. 취미와 공감은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자발적인 동기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촉진한다. 도덕적 요소들에 대한 심미적 지각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중요하다. 현대인들은 “윤리적 감각이 약하다”는 말보다 “미적 감각이 떨어진다” 즉 “촌스럽다”는 말을 훨씬 더 수치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한다. 현대인에게 미적인 요소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의 장면에서 취미와 공감의 요소들이 최대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작위적으로 취미와 공감을 자극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아름답고 선의적인 취향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면을 설정하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좋은 취향과 공감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교육환경의 제공, 각종 콘텐츠의 제작, 그리고 성장세대의 일상생활환경이 되어 있는 매스컴과 사이버세계가 또한 이러한 방향과 궤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또한 불가결하다. 이것은 물론 교사 개인이나 단위학교의 차원의 노력은 물론이고, 사회의 모든 교양세력들의 연계적 노력을 필요로 하며, 또한 국가적, 국제적인 문화 정책적 노력까지 요청되는 실로 거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가 아름답고 선의적인 종족으로 발전하고 번영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2. 독일의 도덕성 교육의 두 번째의 장점은 도덕성 교육이 학교생활의 전체장면 속에서 상호연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생활 자체가 인간다움을 증진시키기보다 악화시키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도덕성 함양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독일학교교육은 경쟁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경쟁으로 인한 위선, 허영, 시기, 질투, 증오, 복수심, 좌절, 열등감, 반사회적 공격성 등이 생겨나지 않게 배려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이 성장세대들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또한 독일학교의 교사들은 모두가 도덕교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바람직한 공동체적 삶을 위한 기본적인 행동양식과 태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입장에 따라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교육의 모습을 보면 도덕교육이 특정 과목이나 프로그램만으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독일학교 도덕성 교육의 시사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독일학교의 수업방식은 아이들의 사고력을 형성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며, 평가방식도 또한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러한 사고력은 단지 지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과 실천에 직결되어 있다. 즉 수업과 평가를 통하여 실천적 사고력과 판단력이 계발되고 검증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도덕적 판단력도 자연스럽게 양성된다.
- 2) 독일의 학교교육은 또한 성장세대가 자연인임과 동시에 시민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으로 발달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초생활교육(수영, 자전거, 스포츠 등)과 환경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삶의 건강성과 행복감이 증진되며, 개인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고자 노력하게 된다.
- 3) 문화적, 예술적 소양의 계발은 독일교육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이다. 이러한 문화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은 문화적, 민족적 연대감을 공유하게 되고 문화적 전통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문화 속에 들어있는 가치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위에서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문화교육을 통하여 취미(미적 취향)와 공감이가장 효과적으로 발달되며, 이러한 취미와 공감을 통하여 도덕의식

이 효과적으로 계발될 수 있다는 것을 독일교육은 보여준다.

3. 빌리-헬파하 김나지움의 행복수업은 기존의 도덕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점차 약해지면서 실효성이 문제가 되자, ‘행복’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주제에 집중하여 도덕교육, 가치교육의 효과를 올리고 있는 새로운 시도로서 관심을 끈다. 어차피 전통적인 가치덕목을 모두 성장세대에게 받아들이게 하기는 어려우므로, 성장세대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주제에 집중하여, 이를 통하여 연관된 가치의식을 함께 발달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4. 독일의 교육을 지원하기위해서 연방차원과 주정부차원의 교육서버(Bildungsserver)가 구축되어 풍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은 매우 좋은 사례로서, 우리도 이러한 제도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II. 참 고 문 헌

- 김창환(2008). 『인재강국 독일의 교육』. 도서출판 신정.
- 박성숙(2011a). 『꼴찌도 행복한 교실』. 21세기북스.
- 박성숙(2011b). 『독일 교육 이야기』. 21세기북스.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연구국제협력센터 편(2007), 『세계의 교육동향 (2006-2007). 프랑스, 독일, 핀란드 편』 (연구자료 RM 2007-40).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 『2008 국제교육 연구 사업』 (연구보고 RRO 2008-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 『교육과정 · 교육평가 국제비교 연구 (Ⅳ)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RRC 2002-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0). 교육과정 교육평가 국제비교 연구. 2. 주요국의 학교 교육과정 교육평가 운영 실태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Meyer, Hilbert(2009). Was ist guter Unterricht? 6. Aufl. Berlin.
- Koerner, Nicola(2007). Moralische Erziehung in der Schule - Begründung, Ansätze, Perspektiven. Muenchen.
- Zierer, Klaus(2010). Können Kinder Moral lernen? 2. Aufl. Baltmannsweiler.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m 29. Juli 2009(독일 연 방 공 화 국 헌 법) .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gg/gesamt.pdf>
- Verfassung für Rheinland-Pfalz vom 16. Dezember 2005(라인란트-팔츠 주정부법). http://rlp.juris.de/rlp/gesamt/Verf_RP.htm
- Landesgesetz über die Schulen in Rheinland-Pfalz vom 30. März 2004(라인란트-팔츠 학교법)
http://rlp.juris.de/rlp/gesamt/SchulG_RP_2004.htm
- <http://www.kmk.org/> (독일주정부교육부장관협의회 홈페이지)
- <http://www.bildungsserver.de/> (독일 교육서버)

<http://bildung-rp.de/> (라인란트-팔츠 주정부 교육서버)

http://lernarchiv.bildung.hessen.de/sek_i/ethik/gym/index.html/
(헤센주 교육서버 윤리교육과정)

<http://www.whs.hd.bw.schule.de/glueck.htm> (빌리-헬파하 김나지움 행복수업 사이트)

연구자 약력: 고려대학교 독어독문과 졸업. (서울) 한성고등학교 교사
10년 재직. 독일 마인츠대학교에서 철학박사(교육철학) 학위 취득.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관심분야: 일반교육학(체계적 교육학), 인성교육

저서: 『칸트의 교육이론』 (학지사 2003), 『인성교육』 (양서원 2008/
공저)

역서: 『헤르바르트의 일반교육학』 (학지사 2006)

논문: 「헤르바르트의 교육적 수업이론에 대한 고찰」 (2002), 「독일대
학의 교육학교육」 (2004), 「체계적 교육학의 필요성과 가능성」
(2006), 「하이데거의 “휴머니즘에 관한 편지” 에 대한 교육학
적 성찰」 (2009), 「프로이트 무의식이론의 인성교육론적 의미」
(2011) 외 다수.



발표 4

싱가포르 ‘공민과 도덕교육’ (Civics and Moral Education)

김항인 교수(경인교육대 윤리교육과)

싱가포르에서 ‘공민과 도덕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공식 교과로서 청소년들을 위한 인성, 인격, 도덕교육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공민과 도덕교육 교육과정은 성격, 목표, 배경이론, 내용(가치요소), 방법, 평가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우리나라 초, 중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구성 방식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서, 학교 교육과정의 일반적 구성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1. ‘공민과 도덕교육’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교과와 필요성과 특성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게 된다. 국가 및 사회적 요구로서의 교과 설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교과가 가지는 특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공민과 도덕교육’에서는 교과와 성격의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치들은 한 인간의 인격 기초이다. 그것들은 개인의 삶, 주변 인물, 나아가 세계를 대하는 신념과 태도를 결정한다. 공민과 도덕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아, 타인,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적합한 선택들과 행동 및 태도를 결정하도록 도움을 주는 가치들을 습득하고 이에 따라 살도록 도움으로써 도덕적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둔다. 가족은 아동의 도덕발달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학교 역시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배려하며, 책임있는 개인과 시민으로 발달시키도록 지식, 생활 능력 그리고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Curriculum Planning and Development Division(CPDD), 2007:4).

위와 같이 인격교육을 위해서는 가치, 태도 교육이 중요하며, 이러한 교육의 역할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공민과 도덕교육’ 교육과정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도덕 원칙들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청소년이 현대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도덕적 가치들을 이해하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학생들은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정서적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이는 자신들 앞에 놓인 다양한

선택 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이 싱가포르에 대한 소속의식과 미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민과 도덕교육 교육과정 개발에서 고려된 사회적 요구 사항으로는 급속한 노령 인구 증가, 가족의 연대의식 감소, 맞벌이 핵가족화, 높은 이혼율, 지구촌화, 국제 협력과 경쟁, 지식 기반 경제의 성장, 높은 이직률과 경제적 재구조화, 급속한 정보 통신 및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을 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학교교육에서의 인격 및 시민성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가치들과 사회 정서 능력을 형성하도록 하는 기회 제공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발달 단계 및 교육적 배려(언어 능력, 주제 선정, 활동, 학제적 프로젝트 학습과 평가)를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학교교육에서의 도덕교육에 대한 요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맥을 같이한다. 노령인구 증가와 인구 감소, 핵가족화, 높은 이혼율, 지구촌화, 급격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은 우리 사회에 직면한 시급한 문제들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이 사회 각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을 진 주체는 가정과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싱가포르의 도덕교육이 우리나라 도덕교육에 제공하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공민과 도덕교육’ 교육과정 목표

본 교과목의 목표는 총괄목표와 하위 목표로 제시된다. 일반적으로 하위 목표는 총괄목표를 더욱 구체화시키며, 단위 별로 세분화 하여제시하게 된다. 먼저 ‘공민과 도덕교육’의 총괄목표는 다음과 같다.

공민과 도덕교육의 총괄목표로는 자아, 가족, 학교, 공동체, 국가 그리고 세계에 대해 배려심있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훌륭한 인격을 육성하는 데 있다(CPDD, 2007:4).

위의 총괄목표에 나타난 바로는 환경확대의 원리를 활용하여, 자신으로부터 가까운 공동체를 통해 국가 및 세계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배려심’ 과 ‘책임감’ 을 가진 ‘행동’ 하는 인격자를 육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총괄 목표상에서 초점을 둔 가치요소는 ‘배려’ 와 ‘책임’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지적 측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행동’ 하는 실천력있는 도덕인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총괄 목표를 하위 목표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 나의 가치들과 신념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나를 훌륭한 인격자로 만드는가?
- 나의 가치와 신념들을 어떻게 적용하나?
-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러한 목표들은 의미있는가?
-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 나는 타인 및 환경과 어떤 관계인가?

나는 다음의 집단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며, 어떻게 공헌할 수 있나?

- 나의 가족
- 내 공동체
- 국가
- 세계

우리는 어떤 국가인가?

- 우리의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 국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지구촌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CPDD, 2007:5)

위의 하위 목표 제시방식은 총괄목표에서와 같은 일반적인 진술이 아닌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학생들에게 단순히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도달하도록 하기보다는 의문점을 가지고 탐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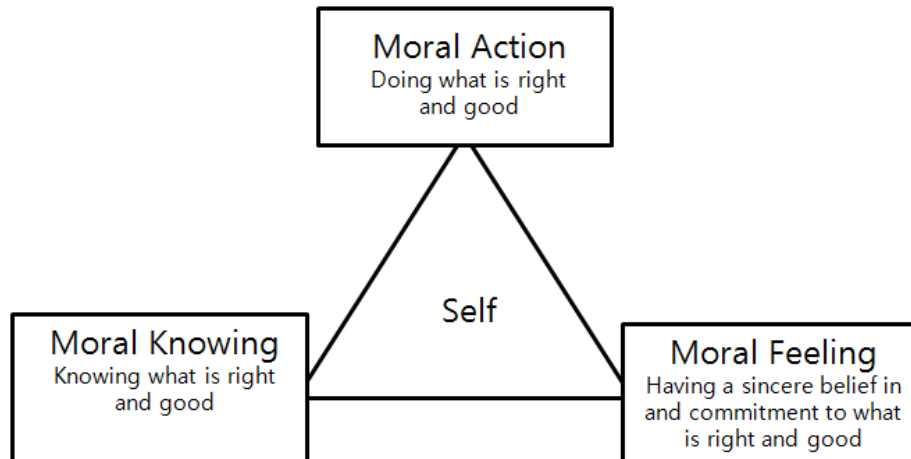
도록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의 질문으로 나뉜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로서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명료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할지를 학습자 스스로 찾도록 하는 형태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는 ‘집단에서의 역할과 공헌’에 대한 질문으로서, 집단은 ‘가족’, 학교 및 고장을 포함한 ‘공동체’, ‘국가’, ‘세계’로 확장되어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 역시 ‘가치관계 확대’의 원리를 적용하여 비슷하게 제시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이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아, 향후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3. 교육과정 배경 이론 및 구조

각 교과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이론적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민과 도덕교육’에서는 리코나(Lickona)의 인격교육이론을 중심으로 가치교육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공민과 도덕교육 교육과정은 개인의 신념 태도 행동이 자신의 가치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에 근거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인격을 발달시키도록 그들의 건전한 가치들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가치들을 내면화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일은, 좋은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왜 이러한 가치들을 중요시해야 하는 까닭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한다. 나아가 학생들은 이러한 가치들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야 하는데, 다음의 표에 나온 여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에 나온 도덕적 인지, 감정, 행동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올바른 인간을 육성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1〉 도덕적 인지,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동의 관계(CPDD, 2007:5)



위에서 도덕적 인지는 도덕적으로 옳고 바른 것을 아는 것과 관련된 인지적 측면의 도덕성이다. 학생들은 올바른 가치들을 정의할 수 있고, 도덕적 원리들을 형성하며, 좋은 인격과 올바른 행동을 구성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도덕 추론, 비판적 사고, 책임있는 의사결정, 문제해결,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기술들이 도덕적 인지에 포함된다.

도덕적 감정은 도덕적으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도덕성의 정의적 측면을 일컫는다. 이는 좋은 가치들에 대한 신념과 더불어 이를 지탱하려는 헌신을 포함한다. 우리는 가치와 신념들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우리는 도덕 감정을 통해 도덕적 문제와 관련된 행동의 결과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도록 동기화된다. 자기반성 능력 역시 자아 인식을 형성하고 우리와 사고와 행동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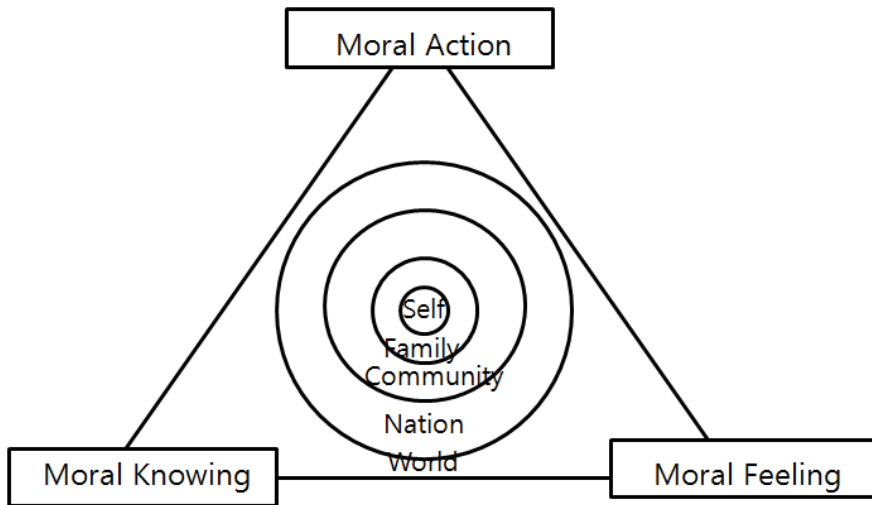
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앎과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과 관련된다. 도덕적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덕적 의지와 능력뿐만 아니라 일관된 올바른 습관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는 학생들에게 도덕적 가치들을 실천하는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어야한다. 도덕행동과 관련된 기능은 목표 설정, 갈등 해결과 관련된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들이다.

위의 도덕성의 세요소의 관계를 알아보면, 행동들이 도덕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도덕적 앎과 감정에 기초할 경우, 개인은 위의 〈그림1〉과

같은 삼각형의 핵심처럼 훌륭한 인격을 발달시킬 수 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서 올바른 가치들이 적절한 행동을 이끌어 내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심에 위치한 자아는 내부로부터 도덕인격의 발달을 강조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외부의 충동이나 보상보다는 자신의 가치신념과 체계에 근거해 행동하도록 하는 내재적 동기화를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건전한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 공동체, 국가 및 세계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에서 가치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림 2〉에서와 같이 밖으로 확장되는 중심원은 한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 개인은 자신, 가족, 공동체, 국가 및 세계와 관계된 자신의 역할 및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는 것을 학습한다. 또한 의사결정 시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고 자사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도록 독려된다.

〈그림2〉 개인의 사회적 역할(CPDD, 2007:5)



위와 같이 도덕성의 세요소인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도덕성은 도덕적 앎, 도덕적 정서, 도덕적 행동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 방식은 ‘공민과 도덕교육’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요소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도덕적 삶과 관련된 목표들

- 옳고 그름을 알기
- 건전한 도덕적 원리들을 형성하기
- 건전한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원리들을 알기
- 가정의 중요성과 역할을 이해하기
-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기
- 타인의 관점을 고려함에 있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며, 판단하지 않기
- 의사결정 시 도덕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를 실천하기
- 사회적 통합과 인종 및 종교적 조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 ‘공유된 가치들’ 과 ‘싱가포르의 가정 가치들’ 을 포함한 국가의 행복에 필요한 가치들을 알기
- 공동체, 국가 및 세계 속에서의 역할을 알기

도덕적 감정에 관한 목표들

- 도덕적 가치들을 옹호하고 실천하려는 신념과 열정을 발달 시키기
- 양심적으로 도덕적인 입장을 택할 수 있도록 감정이해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행동들을 명료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 도덕적 문제에 직면할 경우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기
- 자아 반성과 같은 대인관계기술을 개발하기

도덕적 행동에 관한 목표들

- 도덕적 삶과 감정에 기초해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기
- 훌륭한 가치들을 실천에 옮기기
- 도덕적 일관된 행동의 결과로서 좋은 습관 개발하기
-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가지기
- 다인종 다종교 사회에서 조화와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기 (CPDD, 2007:6)

위의 목표 중 첫 번째 목표인 ‘도덕적 삶과 관련된 목표들’에서는 ‘옳고 그름 알기’와 같은 도덕판단력과 ‘사회적 통합과 인종 및 종교적 조화의 중요성 이해’와 같은 도덕사회화를 위한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둘째 목표인 ‘도덕적 감정에 관한 목표들’에서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신념과 열정의 발달을 중요시하는 반면, 타인의 감정을 역할채택을 통해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 시 요구되는 능력들도 강조되고 있다. 세 번째 ‘도덕적 행동에 관한 목표들’에서는 도덕적 삶과 감정을 근거한 도덕적 행위 결정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실천력을 중요시하며, 행동에 대한 책임과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4. ‘공민과 도덕교육’ 교육과정의 내용(가치 요소)

공민 및 도덕교육 교육 내용은 훌륭한 인격의 기초가 되는 여섯 가지 핵심가치를 가진다. 이 가치들은 공유된 가치들, 싱가포르 가정 가치, 싱가포르 21 비전, 그리고 국가 교육 연설에 담긴 가치들을 보완하고 강화한다. 이 가치들을 통해 학생들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책임있는 선택뿐만 아니라 사회 속의 역할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핵심 가치는 존중, 책임, 정직, 배려, 탄력성(resilience), 조화이다. 여섯 가지 핵심 가치에 대한 설명은 <표 1>에서와 같다.

<표 1> 여섯 가지 핵심 가치에 대한 설명(CPDD, 2007:7)

존중	자신 및 타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신뢰하는 것
책임	자신, 가족, 공동체 국가 및 세계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책임을 수행하는 것
정직	윤리적 원칙들을 지키며 옳은 일을 위해 앞장서는 도덕적 용기를 갖는 것
배려	친절과 동정심을 가지고 행동하며, 공동체와 세계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
탄력성	감정적으로 강인하고 도전에 대해 인내하는 것으로 용기, 긍정, 적응력, 지혜를 발휘하는 것
조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

이러한 내용요소로의 가치가 가지는 특징은 우선 가치요소의 수가 6개로 한국의 도덕교육에서 제시하는 19개 가치보다 상당히 적은 수라는 점이다. 학생들의 인격발달을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겠으나, 싱가포르의 ‘공민과 도덕교육’에서는 존중, 책임, 정직, 배려 등과 같은 핵심이 되는 가치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여 교수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 다섯 번째 가치로 제시된 ‘탄력성(resilience)’은 한국의 도덕교육에서는 찾아 볼수 없는 가치이다. 이는 ‘강인함’, ‘불굴’, ‘회복력’, ‘탄성’과 같은 의미로서 도덕적으로 ‘용기있는’, ‘긍정적인’, ‘적응력있는’, ‘지혜로운’ 성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 가치인 ‘조화’는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는 가치로서 인종, 문화, 종교적 다양성을 가진 싱가포르 사회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대표적 가치이다.

위 각각의 가치들은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며, 각 가치별, 학교급 별로 구체적인 학습 목표가 설정되며, 학습 범위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세분화 된 후, 교과서를 통해 구체화 된다. 이에 대한 예시로서 ‘존중’의 가치를 중등학교 ‘공민과 도덕교육’에서 어떻게 세분화하고 계열화하는지를 뒷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위에서 제시한 가치들 외에도 적응력, 모험심, 창조성과 같은 다른 가치들, 개념들, 태도들 역시 학생들로 하여금 위의 6가지 핵심가치들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치로 제시되고 있다.

‘공민과 도덕교육’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가치 교육 접근은 ‘사회 정서 학습(Social Emotional Learning SEL)’이다. 사회 정서학습은 감정에 대한 인식과 통제, 타인 배려의 발달, 책임있는 의사결정, 긍정적 관계 형성, 그리고 문제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기술 등의 습득을 목표로 삼는 접근이다. 일반적으로 도덕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가치교육내용은 인지적 요소가 상당수이다. 왜냐하면 측정 가능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오히려, 지행합일을 이루기 힘들고, 사고와 판단은 했으나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사회정서학습은 사고와 행동의 연결고리로서 도덕적 정서를 강화하는 접근이므로, 위의 비판에 대한 보완적인 접근이라 볼 수 있다.

사회 정서 능력들은 다음과 같다.

자아 인식

학생들 자신의 장점, 성향, 약점들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긍정적 자아개념, 자아 가치, 자기 효능감 역시 발달해 있을 것이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잘 인식함으로써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자기 관리

자기 관리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책임감있는 행동을 통해 개인적 성취를 증대시키는 조직적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사회 인식

타인의 필요, 가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학생들은 타인 대 한 더 깊은 이해와 존중심이 발달해 있을 것이다. 타인이 어떻게 느끼며, 그들의 희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앎으로써 학생들은 사회적 다양성에 대해 공감하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인식은 좋은 대인관계기술에 근본이다.

대인관계능력

효과적인 대인 관계능력은 한 인간의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사회적 연대, 관계 형성, 협력해서 일하기, 협상, 그리고 갈등 해결 능력을 포함한다.

책임있는 의사결정 능력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행복을 위해서는 책임있는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된다. 이는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결정을 개인적,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비판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및 결정내린 바대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려는 신념도 요구된다 (CPDD, 2007:8).

위의 사회 정서적 능력들을 가르치는 일은 가치교육을 보완하고 각각의 가치를 실천으로 옮기는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공민과 도덕교육’의 여섯 가지 핵심가치 중 ‘존중’ 혹은 ‘책임’이라는 가치 요소를 가르칠 때, 이러한 가치 요소의 중요성과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인식 시킨 후, 존중 혹은 책임과 관련된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위의 사회 정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도덕적 행동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을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회 정서 능력의 강조는 한국의 도덕과 교육에도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할 내용이다.

5. ‘공민과 도덕교육’ 교수·학습 방법

공민과 도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내용 중심의 접근보다는 과정 중심의 접근이 선호된다. 내용 중심의 접근들은 사실과 정보의 학습에 초점을 두며 거의 교사 중심의 교육이다. 이에 반해 과정 중심의 접근들은 학생 중심 접근이며, ‘무엇’ 보다는 ‘왜’와 ‘어떻게’에 중심을 둔 학습이다. 이는 학습 기술들을 촉진시키고 행동을 통한 가치들을 내면화하는데 초점을 둔다.

공민과 도덕교육에서는 과정 중심의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접근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접근들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 전수 접근

이 접근은 우리 사회에 의해 주장되고, 또한 우리 문화유산에 있어서 의미있는 바람직한 가치들을 주입하는 것에 강조점을 둔다. 이러한 가치들은 역할모델링, 문화적 실천의 공유, 훈육 등 다양한 가치 교육 방법을 통해 아동들에게 전달된다. 문화 전수 접근은 또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도덕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강조한다. 교사들은 반성적 활동들을 통하여 바람직한 가치들의 내면화를 꾀할 수 있다.

내러티브 접근(스토리텔링)

내러티브 접근들은 이야기 혹은 이야기 구성을 통해 세계관과 사람들의 경험들을 의미있게 이해한다는 데 초점을 둔다. 학생들은 이야기하기와 반성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들을 인식하고 명료화하게 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관련시키고, 이야기들을 구성하며, 타인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자신의 신념과 가치들을 규명한다. 내러티브 접근은 개방적 발문, 명료화, 요약하기, 각 개인의 이야기 구성 및 타인의 이야기에 대해 반응하기 등을 요구한다.

관점 채택(숙고) 접근

숙고 접근은 감정에 초점을 두고 배려하는 인격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 접근의 중요한 질문은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 혹은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 이다. 학생들은 도덕적 의사 결정을 내릴 때, 타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받는다. 타인의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학생들은 타인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균형있는 상황인식을 발달시키게 된다.

행위 학습 접근

행위학습 접근은 경험 학습에 초점을 둔다. 학생들은 학교 및 공동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상황에서 학습한 기능과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가치 체계를 사고, 평가, 의사 결정하며 타인과 의사소통하게 된다.

인지 발달 접근(도덕 추론)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에 기초한 인지발달 접근은 학생들이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및 보편적 관점에 초점을 둔 차원 높은 도덕 발달로 나아가도록 하는 도덕적 추론 과정을 사용하도록 하는 접근이다.

수정된 가치명료화 접근(책임있는 의사결정 모형)

이 접근은 학생들로 하여금 합리적 사고와 감정 인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행동 형태를 검토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치들을 명료화하도록 하는 접근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사회에 의해 지지되는 가치를 포함한 건전한 가치 체계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도록 이끈다(CPDD, 2007:9).

위의 교수·학습 접근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적합한 방식을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2007년 개정 중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접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들이 실제로 교실 상황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접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공민과 도덕교육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접근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공민과 도덕교육 수업 시간에 교사는 위의 교수·학습 접근이외에도 아래에서와 같이 전체 학교 접근,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 봉사학습 등 다양한 경험적 학습 전략들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내용 지식과 기능들을 습득하고, 다른 학생들과 협동적으로 학습하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활동을 경험하고, 나아가 학습한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교사는 전략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학습 유형들, 학생들의 흥미 및 성숙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전체 학교 접근

전체 학교 접근은 효과적인 가치 교육을 위해 필수적이다. 공민과 도덕교육에 대한 공식적 교육이외에 학교 전체 가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한 가치들을 내면화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경험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나아가 학교 행정가 및 교사들은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CIP)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community Involvement Programme)은 학교 교육과정 안과 밖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매학기 6시간 이상 공동체에 능동적이고 의미있는 기여 활동을 한다. 학생들은 책임있는 시민과 미래의 지도자로서의 인격, 능력, 열정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경험학습의 기회를 가진다. 이를 통해 자원자의 정신을 기를 수 있다.

봉사학습(S-L)

봉사학습(Service-Learning)은 공동체 참여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풍부한 경험학습의 환경을 제공하는 교수 학습 접근이다. 위의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봉사 및 학업 목표 학습 결과들과 공동체 참여 경험을 명료하게 연결시킬 때, 학습이 이루어진다.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공동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활동에 참여시키고,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학업과 분명하게 연결시키며, 학생들을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봉사임무에 준비시키고, 구조적인 평가활동에 참여시키는 일이 요구된다(CPDD, 2007:9).

위에서 제시한 ‘전체 학교 접근’은 공동교육과정활동(CCA), 목장 관리 경험 지침(PCCG), 성교육, 국가 교육(National Education)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공민과 도덕교육’ 이외의 여타 과목과의 학제간 교육 통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 공민과 도덕교육을 여타 과목들 및 프로그램들과 연계시켜 보다 의미있는 학습을 진행하는 일은 싱가포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은 지식의 분야들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공민과 도덕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학제간 연계를 통해 여타 영역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도덕성과 창의성 발달을 꾀할 수 있다.

6. ‘공민과 도덕교육’ 교육과정 평가

공민과 도덕교육의 평가는 가치 전수와 학습의 복잡한 본질을 고려하여 가치 및 도덕 원칙들을 이해, 도덕 추론에 관련된 과정의 적용, 책임 있는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과 관련된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는

포괄적이며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수준과 발달적 요구에 맞춰 기획된다.

인격발달에 초점을 둔 공민과 도덕교육 평가의 초점은 학생들이 도덕성을 발달적으로 학습하도록 돕는데 있다. 이는 교사가 학습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세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자기반성을 하도록 할 때 가능하다. 평가는 구술, 루브릭 혹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능하다. 평가는 학생들을 복잡하고 도전적인 주제들에 관해 토론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매 수업시간 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평가와 학습 간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평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학습에 관한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들을 규명해준다.

둘째, 교사 및 부모에게 초반의 교육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셋째, 학생들의 개인 학습을 동기화시키고, 미래의 수행 능력을 강화시킨다.

넷째, 학생들의 자기 인식을 발달시킨다(CPDD, 2007:10).

평가 방법들은 자기 평가, 동료평가, 봉사활동, 저널쓰기와 포트폴리오, 체크리스트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한 설명은 한국 도덕과 교육과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도덕성 혹은 인격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은 매우 힘들며,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는 인지적 측면의 지식, 이해의 측면에 치우친 것이 오늘날 한국 중등도덕과 교육의 실정이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평가는 공정해야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도덕과 평가를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싱가포르의 공민과 도덕교육의 평가 방향 역시 매우 추상적이며, 평가의 당위성만을 제시한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보완이 요구된다.

7. ‘존중’ 가치를 적용한 교육내용 체계

‘인간은 자신과 모든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신뢰할 때 존중심이 발휘된다는’ 기치아래, 싱가포르 중등학교 공민과 도덕교육에서는 학습 주제 선정, 학습목표 제시, 학습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존중’ 이라는 가치가 중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나아가 타 가치들에 대한 교수학습방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중등도덕과 교육의 내용 및 교수 방법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 지를 살펴볼 수 있다.

	주제	학습목표	범 위	관련된 가치
중 학 교	1. 자 아 존 중	- 자아 존중의 중요성 이해하기 - 자신의 특성과 감정을 이해하기 - 자아관리 기술을 개발하기	자아존중이란 무엇인가? 자아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신뢰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진다. 자아 존중심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불건전한 영향에 대해 맞설 수 있다. 불건전한 영향들은 - 부정적인 동년배 압력 - 일시적인 유행 - 대중매체, 광고, 혹은 다른 소스로부터의 부정적인 메시지 - 인터넷의 부당한 내용들 자아존중을 발달시키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자아존중을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 특성, 감정 및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이해해야한다.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고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다. 자아존중 발달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 좋은 습관의 형성 - 긍정적 사고의 실천 - 장점 발견과 평가 - 최선을 다하는 자세	- 자아가치 -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 - 자아 인식 - 자아 관리
	2. 또 래 압 력 에 대 처 하기	- 자아를 존중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또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음을 이해하기	왜 자아 존중이 중요한가? 청소년시기에 학생들은 또래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한다. 또래집단은 청소년의 사고, 가치체계,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긍정적인 또래의 영향을 기치는 집단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격을 성장시키고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독려한다. 반면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또래 집단은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자아를 존중하고 부정	- 신념 - 결단력 - 기략 - 책임있는 의사결정

		적인 또래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자아 존중감을 표현할까? 자아 존중 의식을 청소년들은 또래의 부정적인 압력에 맞선다. 그들은 학대, 갯, 성범죄와 같이 자신의 행복을 저해하는 행동이나 활동에 대해 ‘안돼’ 라고 말하는 자기 관리 능력을 소유한다. 어떻게 또래의 부정적인 압력에 대해 맞설 수 있을까? - 올바른 가치 체계에 근거한 의사결정하기 - 부정적인 또래의 압력이 가져오는 결과를 인식하기 - 좋은 역할모델이 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활동들에 참여하기	
3. 타인 존중	- 타인 존중의 이유 이해하기 - 개인 및 공공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설명하기 - 가족과 타인의 장점, 관점, 필요를 이해하기 - 타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기	왜 우리는 가족 구성원과 타인을 존중해야 하는가? 인종, 종교, 성별, 능력 혹은 지위에 상관없이 타인도 나와 동등하게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사상, 감정, 가치 및 인성을 가지는 독특한 존재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가족은 물론 타인의 감정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 가족 구성원과 타인을 존중해야 하는가? 가족 구성원 및 타인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감정과 견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또한 가족 및 타인의 필요와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가족 및 타인과 의사소통할 때의 기술을 다음과 같이 가져야 한다. - 판단하지 않기 - 정직과 성실로 대하기 - 타인의 필요, 신념 및 문화적 차이에 민감하기 - 타인을 대할 때, 예법 및 인사(경우에 맞는 옷차림, 사생활 보호, 적절한 전화 및 이메일 에티켓 등)와 같은 좋은 습관을 가지기 우리는 가족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도 존중할 수 있는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다. 타인의 재산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가? 우리는 공공 및 학교 도서관 자료, 타인의 아이디어, 디자인 혹은 타인이 창작한 지적 재산권 등 공공 재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소중히 해야 한다. 이러한 타인의 아이디어, 디자인, 혹은 작품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이를 함부로 변형해서는 안된다.	- 상호 존중 - 개인 및 공공 재산 보호 - 자아 인식 - 자기관리 - 관계 형성

	4. 국가에 대한 존중	- 왜 싱가포르를 존중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 싱가포르를 존중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기	왜 우리나라를 존중해야 하는가? 싱가포르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국가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에게 감정적 평안을 제공하는 성장해온 기억, 살면서 겪는 경험들, 친근한 장소 및 시민들에 대해 좋은 기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는 취약성과 제약들을 극복한 싱가포르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어떻게 국가를 존중할 것인가? 우리는 아래의 방식으로 국가에 대한 존중심을 표현한다. -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 국가, 선언과 같은 국가 아이콘에 대해 적합하게 행동하기 - 환경은 깨끗하게 보호하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국가 자원을 최대화하기 - 법을 준수하고 공공시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	- 국가 상징물 - 우리 국가에 대한 자부심 - 관계 형성 - 사회적 인식
고등학교	1. 자아 존중	- 자아 성찰을 통한 자아 존중의 중요성 이해하기 - 자아 존중을 위한 자아인식과 자기 관리 기능을 제시하기 -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확대하지 않음을 통해 자아 존중 설명하기	왜 우리는 자신을 존중해야 하는가? 자아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통해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발견하는 기회를 가진다. 자아 성찰은 우리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성공을 위해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에 성취하도록 이끈다. 어떻게 자아 존중을 실천하는가? 자아 존중은 다음의 잘못된 습관들을 통해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자아 관리 능력을 요구한다. - 흡연 - 고칼로리 음식 섭취 혹은 극단적인 다이어트 - 약물 오남용 - 인터넷 상의 포르노사이트 검색 혹은 불건전한 채팅 - 성, 폭력 및 불건전한 내용을 소재로 한 게임 - 무책임한 성행위	- 자아 존중 - 자아인식 - 자기 관리
	2. 타인의 신념과 전통에 대한 존중	- 타인의 신념과 전통을 이해해야 하는 까닭 설명하기 - 다른 인종 및 종교를 가진 사람과 교류해야 하는	왜 우리는 타인의 신념과 전통을 알아야 하는가? 다른 문화와 종교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인종과 종교 간의 조화를 높이 평가하므로 우리는 이러한 다양성을 즐겨야 한다. 왜 타인의 필요에 민감해야 하는가? 다른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신념과 관습은 그들에게 중요하므로, 이러한 사람들과의 교류에 민감해야 한다. 타인과의 교류에 민감함으로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심을 발달	- 속고 - 겸손 - 개방적 사고 - 민감성 - 공공의 영역 - 인종과 종교적 조화 - 사회 통합 - 관계 형성

	필요성 이해하기 - 타인의 신념과 전통을 존중하는 사회 인식과 관계 방식을 제시하기	시기고 다양한 인종 혹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강화해나갈 수 있다. 우리는 보다 공동의 영역을 창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떻게 타인과 교류할 것인가? 타인의 신념과 전통을 대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수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배운다. - 개방적 사고를 하며, 무관심 혹은 부정적인 언행을 하지 않기 - 타인의 신념과 관습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웃거나 놀리지 않기 -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신념과 관습이 타인의 것들 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지 않기	
3. 법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	- 법에 대한 인정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기 - 개인과 환경을 보호하는 법을 설명하기	왜 우리는 법을 필요로 하는가? 법은 국가의 질서, 안전, 평화를 위해 정부가 부여하는 것으로서, 개인으로부터 기업 및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은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도덕적 및 법의 의무이다. 개인과 환경을 보호하는 법들은 무엇인가? 일부 법은 다음과 같은 행동과 관련된 개인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다. - 길가에 담배꽂초를 버리거나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흡연 및 약물 오남용 - 부모의 부양 - 컴퓨터시스템 접속과 조작 - 종교적 조화의 유지 - 치안 유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법을 준수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기본적인 자유란 무엇인가? 기본적이 자유는 싱카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이다. 이러한 자유는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보장하고 시민	- 시민성 - 민주주의 - 자유 - 개인권리와 사회적 요구 - 정의 - 사회적 책임 - 능력주의와 반부패

		들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삶의 표준을 영위하도록 보장한다. 시민들은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받는 동시에 법에 의해 이러한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기본적이 자유는 다음과 같다. - 인격의 자유 - 노예 혹은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보호 - 언론, 집회, 조직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범죄로부터 보호 - 교육받을 권리 - 평등의 권리 - 추방의 금지와 이주의 자유	
4. 생 명 과 자 연 에 대 한 존 중	생명과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중요성 이해하기 - 생명 존중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기	왜 우리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표현해야 하는가? 전체 생명에 대한 존중은 인간, 동물, 자연 환경, 취약한 생태계를 배려하는 행동을 요구한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관련된 주제는 무엇인가? - 제약 실험에서 동물의 사용 - 유전자 조작 음식 - 동물 복제 - 동물 조직 이식	- 배려 - 존엄성 - 책임 - 윤리적 연구 실행

(CPDD, 2007:11-12)

7. ‘공민과 도덕교육’ 내용 체계가 한국 중등 도덕과 교육에 주는 시사점

내용 체계표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습 주제의 전개 방식이다. 중학교의 경우, ‘존중’의 가치는 자아 존중, 또래 압력에 대처하기, 타인 존중, 국가에 대한 존중으로 가치의 적용 범위가 자신으로부터 또래, 사회, 국가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는 한국의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영역 안에 규범을 제한시키는 접근과는 다른 방식이다. 존중의 가치를 학생들의 다양한 생활 장면 혹은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의 공민과 도덕교육 방식은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학습목표 제시에서 도덕적 기능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도덕과 학습목표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목표로 나

뉘어 제시된다. 공민과 도덕교육 역시 ‘자아존중 중요성 이해하기’ , ‘감정을 이해하기’ , ‘자아관리 기술 개발하기’ 와 같이 세부분으로 나뉘어 제시한 점은 한국의 도덕과 교육과 유사하나, 행동적 영역을 ‘자아관리 기술 개발’ 이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기술 개발’ 에 초점을 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또래 압력에 대처하기’ 의 학습목표로서 ‘자아를 존중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또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음을 이해하기’ 및 타인 존중의 학습목표인 ‘타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기’ 는 인지적 목표와 행동적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학습 범위에 제시된 학습 주제 제시방식을 질문형을 사용하고 있다. ‘자아존중이란 무엇인가?’ , ‘자아 존중을 발달시키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 ‘왜 자아 존중이 중요한가’ , ‘어떻게 자아 존중감을 표현할까’ 와 같이 질문형의 형태로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의 하위 목표를 위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문형으로 제시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학습자들의 탐구적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탐구형 주제제시가 매우 유용하다.

넷째,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중등 도덕과 및 윤리 교과와 내용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추상적이며, 보편적인 윤리원칙을 이해하고, 윤리 사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반해, 공민과 도덕교육에서는 그 내용 제시에 있어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중학교의 공민과 도덕교육의 내용 중 ‘일시적인 유행, 대중매체, 인터넷의 부당한 내용’ 과 같은 불건전한 영향에 맞서는 내용, 좋은 역할모델이 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타인을 대할 때, 예법 및 인사 (경우에 맞는 옷차림, 사생활 보호, 적절한 전화 및 이메일 에티켓 등)와 같은 좋은 습관을 가지기, ‘흡연, 고칼로리 음식 섭취 혹은 극단적인 다이어트, 인터넷 상의 포르노사이트 검색 혹은 불건전한 채팅, 성, 폭력 및 불건전한 내용을 소재로 한 게임, 무책임한 성행위’ 등 청소년들의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가치문제 혹은 행동 상황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효성이 높은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인격의 자유, 종교, 평등의 권리 등 추상적이고 도덕원리적인 내용을 전혀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

여, 실제적인 내용과 추상적인 도덕원리를 균형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Curriculum Planning and Development Division (2007). *Civic and Moral Education Syllabus Secondary*.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발표 5

국내 도덕성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이채식 교수(대구한의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I. 서론

청소년은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게 된다. 신체적인 왕성한 성장과 사고 능력의 확대는 자신에 대한 관심과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자 한다. 청소년은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욕망의 에너지를 자신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 주로 발산하게 된다. 부모와 교사들에게 의존적이었던 삶의 방식에서 점차 독립적인 생활과 주장을 나타내며 또래친구와의 시간속에서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 살아가게 된다. 때로는 청소년은 충동과 호기심에 의해 주어진 일상생활의 규범과 질서로부터 탈주를 꿈꾸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담론은 이러한 청소년의 특정행동을 문제행동으로만 제한하여 집중하곤 한다.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생각과 행동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특정가치와 규범에 벗어나기도 하며 때로는 기존 질서와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한다. 가정에서 부모와의 갈등이나 대립, 학교에서 교사와의 갈등, 지역사회에서 기성세대와의 대립 등의 청소년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청소년이 일상에서의 겪는 갈등과 대립은 기성세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절하게 중재되거나 조정되어진다. 그러나 불안정하며 보호받지 못하는 삶의 환경과 왜곡되어진 삶의 경험속에서 청소년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출, 절도, 범죄 등의 보다 심각한 문제행동을 겪기도 한다.

지배적인 사회규범을 벗어나 표출되는 청소년의 삶의 방식과 청소년에 의한 문제행동들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곤 한다. 미디어에 의해 과장되어 전달되는 청소년 특정한 사고와 행동방식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의 부재 혹은 도덕성의 위기로 설정되어 진다. 우리 사회는 자연스럽게 미성숙함으로써 청소년의 담론이 확대재생산되어지며, 청소년이 일으킨 문제행동에 따라 가정, 학교교육, 청소년교육 및 학교밖 관련분야의 문제점이 지적되곤 한다.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이루며 바람직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 학교밖교육은 많은 개입과 실천을 해오고 있다. 학교교육은 도덕교과 및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도덕성확립을 위해 실천하고 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교육은 지식중심적인 학교교육을 비판하며 청소년의 덕성함양을 강조하는 청소년육성을 추진해오고 있다. 청소년의 도덕성 교육은 사회적으로 제한된 문제론적 접근과 대응전략보다는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덕성교육에 대한 성찰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도덕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내 도덕성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덕성교육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도덕성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교교육과 청소년교육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째, 학교교육의 도덕성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며 도덕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며, 둘째 학교밖 청소년교육의 도덕성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여 청소년교육의 도덕성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청소년과 도덕성

1. 전인교육과 도덕

우리나라의 교육목적은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전인은 모든 것을 갖춘 온전하고 원만한 인격체로 지·정·의가 조화롭게 통합된 인간이다. 교육은 선천적인 잠재능력을 고루 발전시켜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는 일이다. 지·정·의가 완전히 조화된 인격자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공리주의와 입신출세주의를 동기로 하거나 국가권력이 요구하는 부국강병주의에 지배되어서 인간생활의 일면에 지나지 않는 지식·기능이나 극단적인 애국심만을 강조하는 교육에 반대하여 나타났다. 인간의 성장발달이 통합적이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인간을 신체적·정신적 또는 지적·정의적·심리운동적 등으로 나누고 있으나 이것은 단지 사고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인간을 형성하는 요소가 많아해도 인간은 하나로 통정되어 전체적으로 반응한다. 이들 각각의 영역은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관련하에서 상호작용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Pestalozzi는 교육에 있어, 인간을 선천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간성의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사고하기 위하여 머리를 도야하며, 이웃에 선을 베풀 수 있게 가슴을 도야하며, 몸, 손, 발을 도야하여 기술을 익하게 된다. 이러한 도덕력은 심성력, 지력은 정신력, 기술력은 감각력 등으로 구분된다. 인간교육에 있어 지(知)는 머리, 의(意)는 가슴, 행(行)은 손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3가지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되어 있으며 조화발전과 나아가 하나의 통일을 이루게 된다. 인간은 3가지 능력을 조화적이고 자연적인 힘의 계발을 통해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게 된다. 3가지 근본력은 서로 평등하며, 서로 결합되어 있어서 분리하는 일 없이 상호조화적이거나 완전한 균형

속에서 삼위일체를 이루는 발전을 한다. 어느 하나의 힘에 편중한다는 것은 자연을 역행하는 교육이며, 개인의 인격은 분열되고 개개인의 집합체인 사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어 사회가 해체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가슴, 머리, 손의 실제적이며 참되며 합자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화통일을 고려하는 것은 인간에 가장 중요하며, 당면한 일시적인 것은 그 존재의 필연적인 결과로써 인간의지에 의하여 인간본성 속에 영원불변의 것과 조화하도록 해야한다. Pestalozz의 조화사상은 도덕에 기반하여 도덕 내지 심정의 도야를 중핵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권정민, 1992).

전인교육은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토대를 마련한 교육입국조서에서도 나타나 있다. 교육입국조서에는 신교육이 지향해야할 기본목표로서 덕·체·지의 삼육을 제시하며 전인적 인간을 설정하고 있다(이경희, 1994).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덕(德)을 기르기 위해 오륜의 행실을 닦아 속강(俗綱)을 문란하게 하지말고 풍교(風敎)를 기식(技植)하여 인세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행복(亨福)을 증진하도록 한다. 둘째 몸(體)을 기르기 위해 동작을 떳떳이 하고 근로와 역행을 주로 하며 게으름과 평안함을 탐하지 말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꺾이지 말며 근육을 굳게하고 뼈를 튼튼히 하여 건장하고 병없는 약을 누려받도록 한다. 셋째, 지(智)를 기르기 위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성(性)을 이룩하여 좋고 미운 것과 옳고 그른 것과 길고 짧은 데서 나와 남의 구역을 세우지 말고 자세히 연구하여 널리 통하기를 힘쓰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요약해보면 인간의 전인교육은 지·덕·체의 유기적 관련하에서 상호작용과 조화를 제시하고 있다. 학교교육이 지식교육에 치중하고 덕성교육은 등한시하거나 지식교육과 덕성교육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현실의 경향에서 학교교육 및 청소년교육에서 지·덕·체의 유기적이며 조화로우미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2. 사회변화와 도덕

청소년의 도덕 및 도덕성의 위기가 사회이슈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사회변화의 속도와 질적 측면과 연관하여 이해될 수 있다. 전통사회는 같이 외부세계와의 교섭이 적고 변화의 속도가 더딘 다소 폐쇄적이고 정태적인 사회이다. 전통사회는 사회관습이나 관행 등 규범체계가 대체로 고정되고 안정된 사회이다. 사회구성원이 숙지하거나 공유하고 있어 심각한 정당화 문제는 제기되지 않으며 오직 규범체계를 실행하는 성향과 실천하는 품성을 함양하고 동기화하는데 집중된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라 전통사회의 익숙한 사회관계와 모습은 점차 약화되고 사회구성원이나 여러 사회간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변화가 가속화된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변화된 사회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결속하고 유대를 공고히 해줄 행위규범의 존재근거 자체가 흔들리며 공유하는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 근거도 불확실하게 된다. 불투명한 사회구조에 있어 행위규범의 정당근거 및 적용범위, 인식근거 등의 도덕의 정당화문제가 윤리학의 중심에 떠오르게 된다(황경식, 2007).

우리 사회는 유교적 질서와 규범이 여전히 사회구성원들의 사유구조와 행동양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장승희, 2009) 그러나 사회변화에 있어 유교와 전통의 점차 약화되거나 위축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변화로는 지식기반 사회의 고도화, 정보기술의 더 고도화, 세계화의 진전으로 가까워진 세계, 우리 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전 등이 논의되고 있다(조난심, 2007). 이러한 현대사회에 전통도덕의 한계는 성리학적 유교규범에 대한 비판에서 찾을 수 있다. 성리학적 형식에 치중한 전통도덕은 형식주의의 폐단으로 권위성과 비실용성이 제기되었으며 현대사회의 변화하는 가치와 다소 괴리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유교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이 잘 사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전통도덕의 한계는 자체의 한계이기 보다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지 못하는 변화의 한계이다. 따라서 도덕성에 대한 논의와 도덕성교육은 급격하고 변화한 사회흐름에 토대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Ⅲ. 학교교육의 도덕성교육 프로그램 현황

1. 학교의 교육과정과 도덕

학교교육에서 도덕교육의 강조는 교육기본법(2008)을 통해 나타난다. 교육이념에 홍익인간(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제시되고 있다.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학습자인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시하였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2007년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진형, 2009) 2009 개정교육과정의 인간상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등이다.

〈표 1〉 추구하는 인간상

2007	2009개정교과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둘째,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셋째,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넷째,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둘째,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셋째,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넷째,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등이다.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 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둘째,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셋째,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넷째,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등이다.

2. 학교 도덕교과의 목표 및 구성

도덕과의 목표는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도덕규범을 익히고,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시민 의식과 국가·민족의식,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며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기른다.고 제시된다. 이전까지 도덕과 교육이 안고 있는 교육 과정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청소년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인으로서의 바람직한 국가·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요소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도덕적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학년에 맞는 도덕과의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셋째, 도덕교육의 이론의 양대 산맥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서 지향하는 교육적 성과를 모두 거두기 위한 시도로서 도덕과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도덕과 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도덕성 함양이란, 도덕적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 능력과,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의지와 행동 습관이다. 도덕과의 교육목표 설정은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 그리고 행동적 요소들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나타난 도덕 교과목의 목표는 자신과 타인·사회·국가·민족 및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도덕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실천 동기 및 능력을 함양하여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첫째, 도덕적 주체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둘째, 자신과 가정학교사회생활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 및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셋째, 자신과 국가민족공동체 그리고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 및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넷째, 자신과 자연 및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이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현재 사회의 여러 가지 도덕 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 능력과 실천의지를 함양하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삶을 여우이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윤리학의 기초를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도덕적 삶과 공동체의 도덕적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력을 함양하여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력과 실천 능력을 지닌다.

3. 학교 도덕성교육의 문제점

학교의 도덕교육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논의되어 왔다. 학교의 도덕교육의 문제는 도덕·윤리에 대한 경직관념 고정된 도덕관 및 국민 윤리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경직된 인간관에 의해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유일한 대답으로 취급하는 경향에 의해 지배된다. 학교의 도덕·윤리교육은 인간교육보다 지식교육 방식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학교 도덕·윤리교육은 학생들의 도덕적 인간화를 촉진하기 보다는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된다. (오만석, 1993) 그리고 도덕 교육에서는 도덕을 수업 시간에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 도덕은 사고하기만이 아닌, 행동 및 행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실 수업은 적절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방법론에 따른 교수는 나이든 사람이나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적합하며, 도덕성의 방법론은 하나의 주제로서 가르칠 수 없으며, 도덕성은 너무 순수하고 영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으며, 학교에서 수업시간을 따로 정해 ‘도덕성’ 또는 ‘도덕 교육’을 하는 것은 도덕 교육이라는 이름 자체가 학생들을 싫증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감과 문제제기도 있어왔다.

최근 이루어진 2009개정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초등 도덕과는 사회/도덕이라는 교과군 속에 편제됨으로써 앞으로 교과가 사라지거나 존속하더라도 학년군과 집중이수제에 의해 변질 또는 크게 약화될 것으로 지적된다(유병열, 2011).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양성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비교과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 준법정신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교과 중심교육에서 체험중심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에서 교과가 아닌 생활속에서의 도덕·인성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

나, 사회과의 교육목표는 사회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은 물론 지리, 역사 및 제 사회과학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른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이처럼 사회과는 도덕인성교육보다는 사회적인 지식과 기능 등 사회탐구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된다(유병열, 2011)

그리고 도덕교과는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가치규범을 내면화시켜 행동을 실천할 수 있고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능력의 신장에 역점을 두고있다. 21세기의 세계화시대에 대비하여 세계속의 한국인으로서 지녀야할 특수적이면서 보편적인 규범의 조화로운 습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내용이 보편성의 지나친 강조와 개괄적인 설명위주로 이루어져 보편타당성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지만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여야 할 내면적인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바람직한 한국인 상과 세계시민상의 조화가 모색하고 있지만 도덕교육과정은 전통적 가치의 틀을 강조하고 기존 가치체계를 따른 한국인의 모습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도덕교육은 다문화양상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세계시민의식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도덕과 교육과정에 있어 교육목표가 도덕적 실천의지 보다 덕목의 습득에 치우쳐있다. 도덕성보다는 규범의 습득을 가르치는 내용으로서 도덕성에 치우쳐 있어 실제 교육과정에서 실천방향을 직접 제시하거나 행동결정의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덕교육은 도덕적 지식과 도덕적 신념과 도덕적 실천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 도덕적 지식과 신념을 불어넣어 도덕적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 덕목을 강조한 생활영역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도

덕교육에서는 기존의 도덕적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역할에 머무르게 된다. 도덕교과서 교육내용 체계에 있어 도덕적 지식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도덕적 실천이 특히 강조되고 도덕과의 학문적 성격도 정의적 영역을 중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교과서에는 대체로 도외시되어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도덕교과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에 대한 이론적 및 실천적 측면에서의 비판은 청소년교육의 도덕성 교육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활성화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갖게 만든다. 학교교육에 비해 청소년교육은 덕성함양 및 도덕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계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며, 도덕성 교육프로그램의 실제성과 효과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교육으로서 도덕교육이 갖고 있는 교육목표 및 다양한 교육내용은 청소년교육의 도덕성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접목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도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와 같이 청소년분야에서도 청소년의 덕성함양과 도덕성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사의 육성과 이를 위한 특화된 도덕성교육지도자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한편, 도덕은 사고하기와 함께 행동 및 실천에 관심을 갖는 지행일치의 사회적 요구는 지식중심의 형식교육에 익숙한 학교교육에 비해 체험 및 비형식교육을 실천하는 청소년교육이 보다 장점을 갖고있다. 또한 교실 및 특정수업 중심의 도덕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확대되고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속에서 청소년교육은 도덕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다.

Ⅳ. 청소년교육의 도덕성 교육프로그램 현황

1. 청소년교육과 도덕

학교밖 청소년교육은 지식중심의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서 덕성함양을 강조하면서 성장하였다(조영승, 1998). 청소년육성은 청소년 교육과의 연관에서 파악하면서 교(敎)는 인간의 지적능력을 증대시키는 교육의 타율적·외면적 측면을 나타내는 반면에 육(育)은 인간의 실천적 능력 또는 도덕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교육의 자율적·내면적 측면을 다룬다(조영승, 1998). 현대에 있어 지적능력개발에 관계하는 교는 주로 학교교육이 담당하고, 청소년의 체험을 통한 도덕적 능력의 함양에 관계하는 육은 학교 밖의 다른 교육부문이 보완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청소년교육의 도덕성에 대한 강조는 청소년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2010)에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함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있어,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의 책임에 있어, 가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청소년분야의 도덕성프로그램 현황

1) 주요 청소년단체의 도덕성 교육

청소년분야의 주요 청소년단체의 도덕성에 대한 강조는 설립목적, 이념 및 주요 프로그램영역에 나타나있다. 청소년단체의 도덕성 및 덕성함양에 관한 내용을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4-H회, 한국해양소년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연맹은 대한민국 청소년에 대한 전인교육(全人敎育)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통일과 민족 웅비(雄飛)의 새 역사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북돋우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2011) 한국청소년연맹의 청소년 상은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율인으로서 우리의 전통을 찾아 가꾸며, 조국의 통일 번영에 이바지하고 자랑스러운 세계 속의 한국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청소년이다. 주요 실천덕목으로는 자율, 책임, 창조, 협동, 봉사, 애국 등이다. 주요 8대 활동에는 과학정보활동, 문화감성활동, 나라사랑활동, 사회봉사활동, 국제교류활동, 전통문화활동, 자기계발활동, 모험활동 등이 있다. 과학정보활동은 21세기의 주역으로서 과학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정보활동을 하여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갖추는 활동, 문화감성활동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균형감각으로 우리의 뿌리를 찾으며 투철한 역사 의식과 민족적 긍지로 문화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활동, 나라사랑활동은 애국정신과 호국 의지를 키우고 현장체험으로 분단조국의 현실을 인식하며, 규칙적인 집단 활동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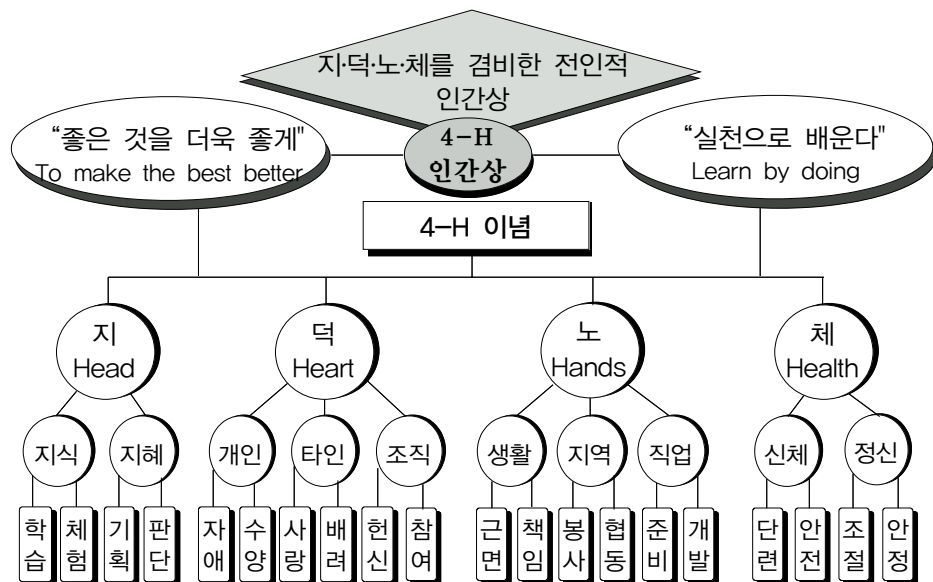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을 갖는 교육 활동, 사회봉사활동은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 봉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활동, 국제교류활동은 해외연수와 청소년 상호교류를 통해 세계인과 어깨를 겨루며 세계화 시대에 진취적으로 적응하는 지도자의 자질을 함양하는 활동, 전통문화활동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우리 문화의 바탕위에 외래문화를 받아들여 우리 문화의 정통성을 지켜 나가고 새 문화를 창조하는 활동, 자기계발활동은 내일의 주인공으로서 바람직한 품성을 기르고 지도자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활동, 모험개척활동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와 성취의욕을 높이고 스스로 행하는 극기, 인내훈련을 통해 여러 경험을 쌓으며, 몸과 마음을 강인하게 단련하여 진취적이고 개척자적인 기상을 진작하는 활동이다

(2)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스카우트활동이란 스카우트교육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의 품성을 닦아 기르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익혀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기쁨으로써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2011). 스카우트는 하느님과 나라에 대한 의무, 타인에 대한 의무, 자신에 대한 의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타인에 대한 의무는 우리 주변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허약한 사람, 노인이나 어린이와 같이 남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 스카우트는 남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하며, 날마다 선행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이러한 일을 습관화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의무는 평소에 자신의 몸을 소중히 생각하고 건강과 위생관리에 힘써야 한다.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 학문과 기술을 익혀서 자기의 지식을 늘리고, 타고난 소질을 살리며, 지능을 계발해 나가는 것도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3) 한국4-H회

4-H회는 지·덕·노·체의 4-H이념을 생활화함으로써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성장토록 하고 있다. 4-H란 명석한 머리[Head, 智育], 충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 勞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이 제시되어 있다. 4-H를 상징하는 클로버는 행운과 성취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흰 바탕은 청순함을, 녹색은 희망을 상징한다.



〈그림 1〉 4-H 이념 실천 체계도

출처: 한국4-H본부, 한국4-H회의 이해

지는 “명석한 머리를 지닌 청소년”이다. 지육은 지식과 지혜를 기르는 활동으로 모든 4-H회원들은 학습과 체험, 기획과 판단을 통해 지육을 함양, 4-H회원은 지육 활동을 통해 교양, 전문지식, 정보, 과학기술 등의 지식을 익히고, 기획능력, 운영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의 지혜를 기를 등이다. 덕은 “충성스런 마음을 지닌 청소년

년”이다. 덕육은 개인, 타인, 조직을 향한 헌신적인 마음과 행동을 기르는 활동으로 자신에 대한 자애와 수양,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조직과 단체에 대한 헌신과 소속감을 통해 덕육을 함양한다. 4-H회원은 덕육 활동을 통해 자기발견, 긍정적 태도형성, 도덕성 함양, 돌봄, 나눔, 상호존중, 공동체의식, 조직헌신, 리더십 등을 함양한다. 노는 “부지런한 손을 지닌 청소년”이다. 노육은 근면과 책임, 봉사와 참여, 직업준비와 직업능력을 기르는 활동이다. 4-H회원은 노육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술선수범, 근검절약, 책임 완수를 배우고,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시민활동,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직업관련 진로발견, 직업능력개발, 기술연마 등을 익히게 된다. 체는 “건강한 몸을 지닌 청소년”이다. 체육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지키는 활동이다. 4-H회원은 체육 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위한 체력단련, 좋은 생활 습관, 질병 예방, 안전관리 등을 익히며, 정신적 건강을 위해 성교육, 감정 조절, 여가활동, 스트레스 관리, 성격개발 등을 배우게 된다.

(4) 한국해양소년단 및 청소년적십자

한국해양소년단은 소년 및 소녀의 해양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해양의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2008) 한국해양소년단은 충·효·예의 건전한 품성을 연마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청소년상을 정립하며, 해양기능 훈련을 통하여 신체단련과 심신을 수련한다. 그리고 청소년적십자는 사랑과 봉사의 적십자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국내외 단원들과의 친선활동을 통해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신과 친구, 가족,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다.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평화의 이상과 봉사의 실천 특히 자기 자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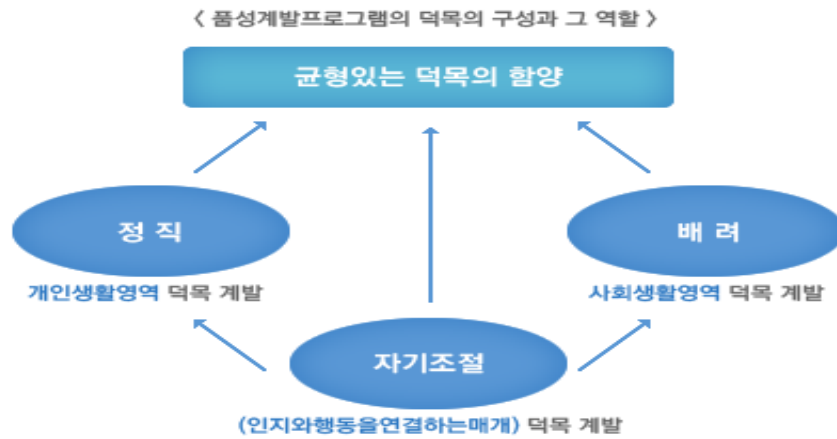
물론 타인의 건강보호에 관하여 가르치고,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또는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며, 모든 나라의 청소년들에 대한 우호적 협동정신을 기르고 가꾸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한다.

2) 청소년 상담시설의 도덕성교육

건강한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를 담당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분야를 담당하는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은 청소년의 도덕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1)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분야의 대표적인 도덕성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올틴품성계발이다. 품성이란 인간이 타고난 소양을 바탕으로 교육과 학습 등 부단한 노력을 통해 정직, 배려 등과 같은 도덕적 덕목들을 내면화한 상태이다. 품성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청소년문제 예방과 청소년의 적응력 향상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품성 교육을 중시하여, 학교 교과과정에서 도덕적 규범과 가치를 가르치는 비중을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도덕적 가치관과 품성적 특질들을 가르치고 있다. 1995년 5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개혁안을 통해 창의성과 함께 인성교육이 신교육체제의 목표로 제시되었다. 인성교육을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 품성계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은 1995년 ‘청소년 도덕성 회복 운동’으로 시작되어 우리 청소년들의 도덕적 가치관 회복을 위한 교육에 주력해오다가, 지난 2000년부터는 보다 기본적인 ‘청소년 품성계발’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2〉 품성개발프로그램의 덕목의 구성과 그 역할

출처: 한국청소년상담원

(2) 주요 지역별 청소년상담시설의 도덕성프로그램

광역시 및 시군 지역에서 청소년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시설의 도덕성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광주청소년상담지원센터,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 이천시청소년지원센터 등의 도덕성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2〉 주요 청소년 상담시설의 도덕성프로그램

시설명	도덕성 프로그램	비고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	도덕성증진/품성개발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품성개발집단상담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품성개발 프로그램	
광주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년 집단상담(품성개발 프로그램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	품성개발프로그램	
이천시청소년지원센터	품성개발프로그램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의 도덕성증진/품성계발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건강한 정신과 밝은 마음이다.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고양하고 자신의 효능감과 가치를 발견하여 신나는 생활, 꿈을 이루는 생활, 건강한 마음과 행동, 지혜로운 문제 해결 능력을 갖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도덕성감수성, 도덕적 판단, 도덕적 판단, 도덕적 실행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대상은 초, 중, 고, 및 일반청소년이다.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품성계발집단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도덕성증진 및 자기 통제력을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집단상담 4회기, 아동이 지향해야 할 정직, 배려, 자기통제와 같은 덕목들을 익히게 된다.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 지원센터에서도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창의적 자기개발을 위한 건강한 품성을 계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정직, 배려, 자기통제에 중점을 둔 덕목실천의 동기부여와 의지를 키워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한다. 품성계발 프로그램이란 청소년의 문제예방 및 치유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창의적으로 자기개발을 해나가는데 바탕이 되는 건강한 품성을 계발한다. 주요내용은 덕목실천을 위한 집단상담을 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품성계발을 위해 품성계발 지도자교육을 운영중이다. 상담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 중 품성계발 전문지도자의 지도력 및 프로그램 운영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한편,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 집단상담인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러 사람과 어울려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기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시군지역에서도 품성계발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품성계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품성계발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정직, 배려, 자기조절 능력을 균형 있게 익히고 실천하도록하여 인지, 정서, 행동의 영역을 총체적으로 경험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천시청소년지

원센터에서도 품성계발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문제예방과 자기계발에 목적을 두어 정직, 배려, 자기조절 등의 덕목을 함양하여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주요 청소년활동시설의 도덕성 프로그램

강원도청소년수련관, 경북청소년수련센터,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등에서도 청소년의 도덕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세부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표 3〉 청소년 활동시설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시설명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내용
국립청소년수련원	1) 인간과 자연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2)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마음의 수련을 통한 조화로운 성장, 3) 하나되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의식 함양
강원도청소년수련관	1) 자기 발견과 긍정적 사고 지향- 자기 개방과 타인 수용, 2) 건설적인 인간관계 증진-잠재력과 창의력 개발, 3) 올바른 가치관 정립- 정직한 시민의식 함양, 4) 공동체 의식과 협동정신 함양.
경북청소년수련센터	1)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청소년을 육성한다. 2) 자연친화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한다. 3) 화랑정신과 선비정신을 체험하면서 호연지기를 키운다.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1)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진 건전한 청소년, 2) 육성 이웃과 자연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3)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마음의 수련을 통한 조화로운 성장, 4) 하나되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의식 함양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체험중심의 공동체 청소년활동은 웃는마당, 즐기는마당, 뛰는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1) 자기 발견과 긍정적 사고 형성, 2) 자기 개방과 타인 수용 능력 향상, 3) 원만한 인간관계 도모, 4) 잠재력과 창의력 개발, 5) 올바른 가치관 확립, 6) 자신의 정체성 정립, 7) 공동체 의식과 협동정신 함양

(1)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국가중추 청소년수련시설로서 각종 수련활동선도 청소년들을 덕·체·지를 겸비한 인격체로 육성하고 있다. 원훈은 ‘청소년이여 늘 푸르라’이다. 육성이념은 육성이념 대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이상을 드높이며 자신과 인류사랑의 마음을 키운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의 육성목표는 1)인간과 자연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2)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마음의 수련을 통한 조화로운 성장, 3)하나되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의식 함양이다.

청소년의 역량군과 하위구성지표



〈그림 3〉 청소년의 역량군과 하위구성지표

출처: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2) 강원도청소년수련관

강원도청소년수련관은 현대사회를 인간성의 상실, 도덕성의 부재,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에서, 전통의 고유 가치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자라나는 세대에 희망을 두고 청소년을 교육하려 하지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현실 등이 만들어 낸 여러 청소년문제가 가로 막고 있다고 진단한다. 강원도청소년수련관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을 보완하

고 전인적인 청소년육성을 위해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우수한 수련활동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관훈은 ‘더불어 함께 살며 소중한 나의 꿈을 가꾸자!(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이다.

교육이념은 은사를 받고 태어난 우리는 저마다의 소중한 소질을 가지고 있다. 이 소질을 맘 흘려 가꾸어 꽃피우고, 이웃에게 그 향기를 발산하도록 한다 등이다. 교육목표로는 1) 자기 발견과 긍정적 사고 지향-자기 개방과 타인 수용, 2) 건설적인 인간관계 증진-잠재력과 창의력 개발, 3) 올바른 가치관 정립-정직한 시민의식 함양, 4) 공동체 의식과 협동정신 함양이다.

강원도청소년수련관의 도덕성교육프로그램으로는 심성계발프로그램이 있다. 심성계발프로그램은 남녀 중고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체험학습 혹은 구조학습(The Structured Experience)이라 불리우며 주로 1박2일 또는 2박3일 집단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① 중학교수련회 ② 고등학교수련회 ③ 학생회 간부 수련회 ④ 수능고사 이후 고3수련회⑤ 수학여행프로그램 ⑥ 특별교육생프로그램 등이 있다.

〈표 4〉 강원도청소년수련관 심성계발프로그램

제 목	교 육 목 표
환영, 소개	- 수련회의 목적 제시
얼음장 깨기	- 자기개방 - 친교 - 성취동기체험 - 적극적 자세 함양
협력공 튀기기	- 협력의 중요성 인식 - 공동체 안에서 자기기여의 가치
꿈빔기 (찰흙)	- 자신과 타인의 꿈을 비교
동기선	- 창의성개발 - 개성 존중
롱다리 걷기	- 친구에 대한 신뢰 - 자신감
인형극제	- 자기표현 - 협력
아낌없이	- 자신의 정체성

주는나무	- 자신의 삶 안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사람에 대한 인식
미니올림픽	- 협동의 중요성 - 최선의 자세 인식
사랑의선물	- 타인의 장점을 보는 긍정적인시선 기르기
장님과 안내자	- 눈의 소중함 인식 - 안내자의 소중함 - 신뢰
탐 쌓기	- 협동심 - 튼튼한 기초 - 공동체 규칙의 중요성과 자기 기여의 가치
우리는 할수있다	- 어려움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체험 - 양심껏 최선을 다하는 기쁨 - 협동심 배양
우리들의밤	- 잠재력, 창의성 개발 - 주어진 역할의 중요성 인식 - 협동심 배양
촛불 앞에서	- 자기성찰 - 새로운 다짐
우리의 이익을 최대로	- 공동체 정신 함양 - "우리"개념의 정립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	- 자아발견 - 바른 가치관 확립 - 타인의 이해와 수용
우리들의 밤	- 잠재력, 창의성 개발 - 주어진 역할의 중요성 인식 - 협동심 배양
촛불의식	- 화해의 아름다움 체험 - 용서의 마음 기르기 - 새로운 삶을 위한 결심
Team Work	- 목적의식의 중요성 (주제파악) - 공동체 내의 협력의 중요성 - 의사 소통의 중요성
나의 거울	- 타인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사고

(3) 경북청소년수련센터

경북청소년수련센터는 청소년들에게 도전정신과 협동심에 바탕을 둔
떳떳한 기상을 함양으로 지성과 덕성이 충만한 청소년육성에 두고있다.
경북청소년수련센터의 미션으로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청소년육성이다.
설립목적은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운영·지원하여 청소년을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인격체로 육성이다.

수련목표는 1) 바람직한 청소년상 정립 : 단정한 몸과 바른 마음가짐
의 생활화, 모험과 도전을 통한 호연지기 함양, 2) 사회적 공동체의식
고취 : 더불어 살아가는 협동과 봉사활동 체험, 현대와 전통을 접목한
수련거리 제공이다. 캐치프레이즈는 ‘가슴을 열어라!! 모험과 도전을
즐겨라!!’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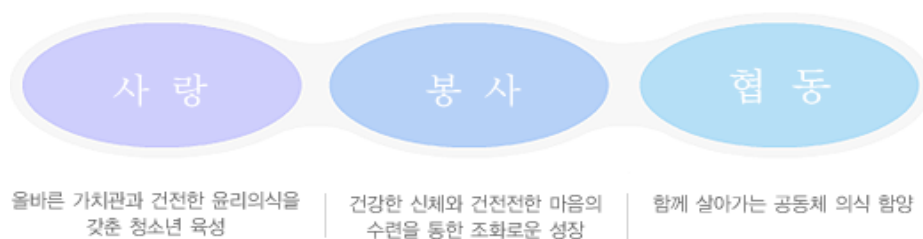
운영목표는 1)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청소년을 육성한다. 2) 자연친화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한다. 3) 화랑정신과 선비정신을 체험하면서 호연지기를 키운다 등이다. 경북청소년수련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에는 체력증진활동, 전통문화활동, 자아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문화예술활동, 보건안전활동, 놀이문화활동 등이다. 문화예술활동 영역에 심성활동이 있다.

〈표 5〉 경북청소년수련센터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영역	세부 프로그램
체력증진활동	챌린지코스 야간모험산행 등산 모험활동 서바이벌게임
전통문화활동	전래놀이 사물놀이
자아계발활동	촛불의식 공동체활동 자아체험활동 도전징글벨
과학정보활동	인터넷정보 로봇공작 전자나라
문화예술활동	두드리 영상체험 풍선아트 영화감상 목공예 심성활동 민속놀이
보건안전활동	위기탈출넘버원 응급처치 성교육
놀이문화활동	모닥불놀이 레크댄스 열전한마당 등

(4)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은 스카우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스카우트의 근본정신인 '사랑, 봉사, 협동'이다.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의 육성이념에는 산, 들, 바다와 함께하는 대자연의 푸르름속에서 시설의 입지적 여건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꿈과 이상을 드높이며 자신과 이웃사랑의 마음을 키운다.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의 운영목표에는 1)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진 건전한 청소년, 2) 육성 이웃과 자연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3)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마음의 수련을 통한 조화로운 성장, 4) 하나되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의식 함양 등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수상활동, 모험개척활동, 자연과학활동, 보건안전활동, 인간관계활동, 놀이문화활동 등이다. 세부단위활동의 목표로는 고무보트타기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도전을 통해 삶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고 구성원들간의 호흡을 맞춰 나가는 과정 속에 단결심과 협동심을 기른다. 스킨스쿠버는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정신력을 향상하고 기른다. 등판오르기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정신력을 향상하고 기른다. 공동체놀이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협동 단결 및 인간애 함양과 평등적 사고를 배우게 한다.

〈표 6〉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의 프로그램

프로그램영역	세부 프로그램
수상활동	고무보트타기 바나나보트타기 수영 스킨스쿠버
모험개척활동	세줄타기 등판오르기 그물장벽오르기 야간모험 협동모험
자연과학활동	생태계탐사 한려해상탐사 추적하이킹OL 공룡발자국화석탐구 등
보건안전활동	약물오남용 소방안전교육 제3교실 구급법 및 응급처치 호신술 금연 교육
인간관계활동	조별활동 공동체훈련 소망돌담쌓기 팀문제해결 해안정화봉사활동
놀이문화활동	공동체놀이 캠프화이어 협동올림픽 레크레이션 농악한마당

(5)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은 개성이 뚜렷하고 다양한 청소년들의 끼를 수용할 수 있는 체험중심, 공동체중심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세계로 뻗어 가고 미래로 나아감을 지향하면서 프로그램은 사회성과 공동체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원훈은 청소년의 다양성 역동하는 청소년의 기상 터질듯한 청소년의 열정이다. 청소년활동의 방향에 있어 체험중심의 공동체 청소년활동은 웃는마당, 즐기는마당, 뛰는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1)웃는마당=심성 래포형성 모듈구성 팀워크구성, 2)즐기는마당=행동 테마별 선택체험활동 모듈과제해결활동 특성화활동, 3)뛰는마당= 의식 활동과 제별시사회 나눔의 시간 피드백 및 분석 등이다.

(6)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은 교육자 돈보스코의 예방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자신감있는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성수련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의 교육이념은 사랑의 교육학인 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 개개인의 자질과 역량을 일깨워 자아실현을 도우며, 행복한 인간, 정직한 시민이 되도록 교육한다. 교육을 통해 청소년은, 삶의 주역이 된다. / 삶을 축제로 산다. / 3 Stars 정신을 산다 등이다. 교육목표로는 1) 자기 발견과 긍정적 사고 형성, 2) 자기 개방과 타인 수용 능력 향상, 3) 원만한 인간관계 도모, 4) 잠재력과 창의력 개발, 5) 올바른 가치관 확립, 6) 자신의 정체성 정립, 7) 공동체 의식과 협동정신 함양 등이다.

4) 청소년분야의 도덕성교육의 특징

청소년단체, 청소년상담시설 및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실천되고 있는 도덕성 및 도덕성교육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청소년단체인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4-H회, 한국해양소년단 등은 설립목적, 이념에 있어 지·덕·체의 3육의 육성 및 조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식중심의 학교교육에 비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덕육 및 체육의 보다 영역이 강조되고 있다.

개별 단체의 다양하고 특징적인 활동영역의 프로그램운영에 있어 도덕성프로그램이 독립적이며 전문화된 집중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않지만 청소년의 바람직한 도덕성을 증진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청소년상담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전문화되고 독립적인 도덕성프로그램을 올티폼성계발, 집단상담으로 품성계발 등이 개발되어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상담분야의 청소년도덕성 프로그램의 구성은 도덕성감수성, 도덕적 판단, 도덕적 판단, 도덕적 실행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청소년활동시설의 도덕성프로그램은 청소년상담분야의 독립적이며 전문화된 도덕성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다. 청소년단체와 비슷하게 청소년활동시설에서도 지·덕·체의 육성 및 조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 비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덕육과 체육영역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활동시설에 따라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이 실천되는 가운데 강원도청소년수련관 등의 심성계발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독립적이며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으나 청소년의 도덕성함양을 위한 내용이 세부프로그램 및 활동에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김보정. 2010. 초등 도덕과 교육에서 덕교육적 요소의 분석과 적용 연구 : 제7차와 2007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영. 2003. '德은 知識이다'의 교육학적 의미. 敎育研究論叢, 24(3), pp. 39-59
- 목영해. 2000. 디지털 정보화 시대 도덕교육에 관한 연구. 도덕교육연구, 12(2), pp. 205-226
- 박준영, 이영희. 2008. 중학교 도덕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철학 35, pp71-96
- 유병열.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덕,인성교육적 오류와 초등 도덕과의 존재 의의. 초등도덕교육, pp.91-126
- 장승희. 2009. 전통도덕의 한계와 새로운 도덕성 탐색을 위한 시론: 유교, 그리고 창의성과 도덕성의 상생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57(1) pp143-166
- 조난심. 2007. 한국 교육의 변화와 도덕.윤리과 교육의 방향 한국 교육의 변화와 도덕.윤리과 교육의 방향. 도덕윤리과교육연구, 1(25), 1-22
- 조영승. 1998. 청소년육성법론. 교육과학사